

이화동창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 총동창회장 이·취임사 / 기획 특집-한눈에 보는 이화의 '보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04

05

12

이화동창

2019년 봄 제154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50×66.5cm, 2003년)

편집위원

김명주(교육 71)
정준순(악학 72)
김광옥(식영 75)
이명실(영문 78)
이영희(사학 88)
김미령(거미부 69)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조성아(정외 89)

- | | |
|-------------------------|------------------------------------|
| 02 신임 총동창회장 인사말 | 남상택 제18대 총동창회장 |
| 04 2019년도 정기총회 | 제18대 신임 총동창회장에 남상택(물리 74) 동창 선출 |
| 06 2019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
| 08 제17대 총동창회장 이임사 | 김영주 제17대 총동창회장 |
| 09 2019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 임경희 간호대학 동창회장 |
| 10 2019년도 신입 동창 답사 | 권민지 신입 동창 |
| 11 2019년도 사업계획안 | |
| 12 기획특집/한눈에 보는 이화의 '보물' | 캠퍼스에서 만나는 시간과 역사라는 가치 |
| 17 축하합니다 | 고 김복희 동창 외 |
| 19 총동창회 소식 | 2019년도 첫 정기 임원회 열려 외 |
| 20 선교부 소식 | 선교부 겨울 수련회 |
| 2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충정공 민영환의 이야기, 책으로 펴낸 민명기 동창 |
| 27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 서울시무용단장 정혜진 동창 |
| 32 이화인 모임 팀방 | 이대동창문인회 |
| 36 모교 사용 설명서 | ECC 주차장 이용법 |
| 39 모교 소식 | 세상을 향한 힘찬 첫 걸음,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외 |
| 44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각 지역의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
| 46 대학(원) 소식 | 음악대학 외 |
| 48 과(학부) 소식 | 영어영문학과 외 |
| 55 지회 소식 | 남가주(LA) 지회 외 |
| 64 동창 근황 | 박인경 동창 외 |
| 72 동창이 펴낸 새 책 | 『오늘을 잡아라·점원』 외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9년 봄 154호

발행 2019년 4월 10일 발행 | 발행인 남상택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9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2019년 3월 9일(토) 정기총회를 열고 제18대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남상택 동창을 선임했다. 남상택 동창은 1974년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 물리학과 강사를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명여고 총동창회장을 지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동창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감사, (재)진명 100주년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청암노인복지재단 이사, (사)소비자 교육중앙회 부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선정 '자랑스러운 물리학과 동문상(동창회 활동 부문)' 수상자이기도 하다.

제18대 신임 총동창회장 인사말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가며
화합과 도약의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남상택(물리 74, 제18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이화 133년의 역사 속에서 23만 명의 이화동창들이 마음을 다한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 온 총동창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총동창회를 이끌어 온 역대 총동창회장님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많은 동창들의 기도와 배풀이 모여서 오늘이 있음을 잘 알기에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 당시 총장이셨던 김옥길 선생님께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화의 졸업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기며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총동창회의 화

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이 학사모를 쓰고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지인의 간절한 기도와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교를 졸업하고 나간 후에도 우리 곁의 많은 기도와 정성에 늘 감사하며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다시 모교 총동창회의 중책을 맡고 보니, 졸업식장에서 김옥길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소중한 말씀이 더욱 크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 그리고 열정과 베풀의 역사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진선미의 이화정신, 즉 나눔과 봉사, 섬김의 마음을 되새기며 총동창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은 순수하고 배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첫걸음을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뒤돌아보면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총동창회가 더욱 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화동창의 소통 통로인 총동창회 홈페이지(www.ewhaalum.or.kr)를 더욱 활성화하여 열린 마음으로 이화동창들의 뜻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먼 미래의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를 생각하는 혜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꼭 필요한 디딤돌로 다시 바꿔가면서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고 이화동창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화’의 이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밀알처럼 때로는 보석같이 빛 나는 이화동창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정기총회

제18대 신임 총동창회장에 남상택(물리 74) 동창 선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3월 9일(토) 오후 2시, 신입동창 환영회에 이어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 윤순희·김순영·이경숙 고문, 김영주 총동창회장 및 252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명실 총무(영문 78)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개회사, 전년도 회의록 낭독, 2018 회계연도 감사·사업 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 개선, 모교 소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영주 전 회장, “이화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멋진 하모니” 기대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문

들과 임원단, 각 대학회장, 그리고 동창들 덕분에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10년을 내려오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벅찼다는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이 강한 이화동창들 하나하나는 ‘이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더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선배 동창들의 연륜과 경험을 경청하고 젊은 후배들의 활력과 새로움을 포용하여 ‘이화’라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과 동기 대표 이순례(유교 71) 동창과 ‘1971년 올해의 이화인’ 동기 대표 한석희(수학 71) 동창이 김영주 총동창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치하였다.

이어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안영호(중문 85) 서기가 낭독하고, 임정희(가관 79) 동창이 동의하-

고 유혜자(영문 67) 동창이 재청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진 2018 회계연도 감사 보고에서 이영란(체육 76) 감사는 “총동창회 회칙 제9조 3항에 의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결산서와 대차대조표 및 회계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감사한 결과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4년 동안 수고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8년 회계연도 사업을 이명실(영문 78) 총무가 보고하고,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2018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임경희(간호 80) 동창의 동의와 황경수(제약 88) 동창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2019년 사업계획을 이명실 총무가 보고하고, 정영출 회계가 2019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수입부 예산 중 특정기부금은 이대서울병원 건립기금 동창 모금분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출부 예산 중 행사비 중액 중에는 총동창회 행사 시 참석 동창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부 지출 예산 1,000만 원 중액분에 대해서는 “2018년에는 아름다운 이화인이 선정되지 않아 상금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2019년에는 상금 1,000만 원을 문화부에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정영출 회계는 “그동안 각 부 운영이 빠듯해서 마땅히 경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기부에 의존하거나 자비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2019년도는 임원진이 교체되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니 각 부 애로 사항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박경실



김영주 제17대 총동창회장(왼쪽)과 남상택 제18대 총동창회장(오른쪽)

(체육 78) 동창의 동의와 유청옥(유교 88) 동창의 재청에 따라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가결되었다.

뒤이어 제17대 회장단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회장, 부장 등의 임원단이 앞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았다.

제18대 신임 회장으로 남상택 동창 발표

이어 전형위원 대표로 나온 김순영(악학 62) 전형위원장이 총동창회의 임원 개선을 발표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순영 전형위원장은 “총동창회 회칙 제3장 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형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전형위원회는 약 4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숙고 끝에 제18대 총동창회장단을 선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일부 동창이 총동창회장 선출과 관련된 회칙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순영 전형위원장은 현재 회칙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회칙에 따라 임원 개선 절차를 거쳤음을 밝혔다. 그리고 제18대 신임 총동창회장으로 남상택(물리 74) 동창이 선임되었음을 발표했으며 이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박경애(유교 71) 동창의 동의와 성혜옥(영문 70) 동창의 재청을 받고 새 회장단 인준을 선포했다. 이날 개선된 제18대 신임



1. 신임 총동창회장 및 임원 개선을 발표한 김순영 전현위원장 2. 김영주 총동창회장에게 한석희 동창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총동창회장단은 회장 남상택 동창, 부회장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동창, 감사 이영애(경영 69)·임진(작곡 72) 동창이다.

제18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남상택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모든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도와 주지 않으면 총동창회장직을 해나갈 수 없음을 토로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제18대 총동창회가 회칙 개정을 검토하고 각 단과대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회장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전 총동창회장님과 임원단께 감사하며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배려가 있었음을 알고 있

으며 이를 보답하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택 신임 총동창회장은 4년간 수고한 전임 김영주 총동창회장에게 감사 꽃다발을 증정했고, 이어 김영주 제17대 총동창회장은 남상택 신임 총동창회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했다.

이어서 김혜숙 총장이 모교 소식을 전했다. 김혜숙 총장은 모교가 기본역량 평가를 통과하여 56억 원을 지원받았고, 2년 연속 입시기관 상위 그룹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2월 7일(목) 이대서울병원에 개원했다는 세 가지 소식을 알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교가를 제창함으로써 2019년 정기총회를 마무리했다.

2019년도 신입 동창 환영회

신입 동창 25명에게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정기총회에 앞서 신입 동창 환영회가 3월 9일(토) 오후 2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2019년도 2월 학부(2,200여 명)와 대학원을 졸업한 약 3,500명의 졸업생이 총동창회에 신입 동창으로 입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회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제창하며 시작되었다. 기도를 맡은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은 “신입 동창들을 두 팔을 벌려 주님의 따뜻함으로 환영한다”며 “여기에 모인 이화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게



1. 총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한 25명의 신입 동창들 2. 강지연 동창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3. 인성희 동창의 축가

해주시고, 소통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또한 총동창회를 이끌고 갈 신임 제18대 총동창회장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을 구하고, 그동안 수고한 제17대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기도했다.

임경희(간호 80) 간호대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동창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며 “이화동창 사회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생과 함께 가는 길고 긴 여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선배의 삶과 성취를 통해 배우는 새로운 사회 교육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화의 역사 속에서 선배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탕을 둔 섬김과 나눔, 헌신과 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며 “선배에게 자랑스럽고 후배에게 꿈이 되는 삶을 영위 하길 기대하며 조금 늦게 가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동창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동창회도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반겨 주고 격려해 주는 좋은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신입 동창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말을 전했다.

권민지(의학 19) 신입 동창은 답사에서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저와 저의 동기들은 앞으로 이화의 일원으로 최초의 그리고 더 나아가 최고의 역사를 쓰기 위해 나아갈 예정”이라며,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후배 이화인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남긴 이화의 가치를 빛내고 이화의 일원으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화 공동체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하는 후배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며 권민지 동창에게 총동창회가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다음은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총동창회는 매년 대학원에 진학하는 25명의 신입 동창에게 각 100만 원씩 2,50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대학원 약학과에 진학한 강지연(약학 19) 동창을 포함한 25명의 동창에게 2019년 제1학기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장학금의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신입 동창 환영회는 인성희(종음 82) 동창이 〈Think of Me(A.L. Webber 곡, 〈Phantom of the Opera〉 삽입곡)〉와 〈축복하노라(신상우 곡)〉라는 축가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동창’이 만드는 ‘우리’라는 멋진 하모니

김영주(교육 71·제17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이화동창 여러분! 4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총동창 회장이 되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임기를 마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계시며 제게 힘을 실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흔쾌히 같이 가주셨습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등 두드려 준 고문님들, 힘을 합해 저를 도와준 부장들, 경험 많은 대학 회장들을 보내 주셔서 힘들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한 총동창회 모든 임원과, 총회가 잘 끝나기를 기도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동창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저는 이화가 가진 전학 이념, 즉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이화, 여성 공동체로서의 이화가 지닌 장점을 살리며, 그에 더해 화합과 포용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동창회가 단독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도 동창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으며,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빛나는 이화인’상을 신설한 것도 각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동창들을 격려

하고, 선후배 간 정보 교환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선배 동창들의 연륜과 경험을 경청하고, 젊은 후배들의 활력과 새로움을 포용하여 이화라는 이름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들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세대 간 다름을 존중하며 화합하고, 이 모두를 포용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110년이 넘게 내려오고 있는 총동창회의 역사와 전통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으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것도 벅찼음을 고백합니다.

‘관계의 중요성’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연구팀이 최고의 성과를 올린 투자 애널리스트 1,052명의 경력을 추적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성적을 낸 그들은 스스로를 ‘슈퍼스타’라고 자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더 좋은 조건, 더 높은 연봉 등을 제안 받고 스카우트되어 다른 조직으로 떠난 이후 벌어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가운데 46%가 실패를 겪었습니다. 성공이 지능과 성실함, 용기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라면 이 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시적

"선배들의 연륜과 경험을 경청하고, 후배들의 활력과 새로움을 포용하여
'이화'라는 이름으로 멋진 하모니를 만듭시다"

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는 5년 뒤에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빛나게 해준 동료들의 무리를 떠난 순간, 더 이상 슈퍼스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는 '성공과 잠재력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편견을 깨고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행복학' 강의로 10년 연속 인기 강좌 1위를 차지한 심리학자 손 아처 교수는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가장 잘 맺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새로운 성공법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라는 잠재력은 개인으로서 각자의 잠재력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이화동창 여러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전환점에 선 이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모교를 응원하는 마음은 우

리 이화동창 모두 같을 것입니다. 저는 총동창회 역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새로운 100년,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동창'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이를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잘 포용하며 시너지를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기 동안의 중요 업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능력 부족으로 동창회 임원과 동창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동창들께 감사드리며, 이화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2019년도 신입 동창 환영사

선배에게는 자랑스럽고 후배에게는 꿈이 되는 동장이 되길

임경희(간호 80, 간호대학 동창회장)



지금까지 여러분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문과 지성을 쌓아 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아실현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이화동창'이라는 새로운 타

이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교육은 인생과 함께 가는 길고 긴 여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귀감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선배님들의 삶과 성취를 통해서 배우는 새로운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 이화는 올해 13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의 혌신으로 1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명문 사학, 세계 최대의 여성 교육의

산실로 우뚝 선 전통과 역사의 전당입니다. 이화의 역사 속에서 선배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바탕을 둔 섬김과 나눔, 혼신과 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선배들에게는 자랑스럽고 후배에게는 꿈이 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는 저를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방대한 네트워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동창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총동창회 또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반겨 주고 격려해 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신입 동창 답사

이화의 일원으로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며

권민지(의학 19)



요즘엔 의대에 입학하는 여학생 비율이 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여전히 남자 의사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제가 주체적으로 의대생으로서 학습하고, 의사로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곳을 떠올렸을 때 답은 이화였습니다. 이화의 수준 높은 수업과 실습을 통해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전전한 윤리관과 능동적인 여성 리더십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올해 국시 100% 합격도 이루어냈습니다.

올 2월, 이대서울병원이 완공되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입 의사 교육을 받으며 이대서울병원 투어를 하는데 벽 한 편에 이대서울병원의 설립을 위해 기부해 주신 분들의 성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는 순간 이화동창 선배들의 도움

을 받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던 저를 포함한 많은 동기들, 선후배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사회에 진출하여 후배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화동창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는 많은 최초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대에도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선배님을 포함한 최초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저와 저의 동기들은 앞으로도 이화의 일원으로 최초의, 그리고 더 나아가 최고의 역사를 쓰기 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화의 품을 벗어나 사회로 발을 내딛는 것이 많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후배 이화인들이 발전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창 선배님들께서 지금까지 만든 이화의 가치를 더 빛내겠습니다. 이화의 한 일원으로 받았던 큰 사랑을 기억하기에 이화 공동체에 여러 방면으로 기여하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

2019. 3. 1 ~ 2020. 2. 29



1.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3월 9일)
2. 각 과, 대학(원) 동창회장 및 국내 지회장 초청 간담회(4월 25일)
3. 제8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5월 11일)
4.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5월 21일)
5.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5월 31일)
총장 초청 오찬
기념식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
 - 졸업 50주년(1969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 졸업 30주년(1989년 졸업) 동창 재상봉 행사

'올해의 이화인' 추대
합창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6.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대バ자(9월 26일 전후)
7. 총동창회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10월 17일)
8. 제18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10월 24일~10월 27일, 미국 시애틀)
9. 이화인의 밤 개최(11월 25일)
10. 제13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11월 25일)
11. 이화가족 성탄예배(12월 5일)
12.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예정)
13. 동창회보 154호~157호 발간(3, 6, 9, 12월)
14. 국내 지회 활성화를 위한 지회 순방
15.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회원 배가 운동(연중)
16. 후원이사 증원(연중)
17. 모교발전기금 모금(연중)
18. 지원 사업(연중) 1)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행사 찬조
 - 2) 나눔가게
 - 3) 학생군사교육단 입단식 후원
19.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연중)
20. 황화방 운영(연중)
21. 기타

캠퍼스에서 만나는 시간과 역사라는 가치

푸릇한 달래, 냉이가 상큼하게 봄을 당기던 2월 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 4년' 명 항아리」가 국보 지정 예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모교 박물관은 국보 2 건 2점과 보물 7건 10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게 된다. 모교 캠퍼스의 파이퍼홀(본관)과 토마스홀(체육관 A동) 2건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금과 은만 보물이랴. 모교 박물관이 소장 또는 모교 소재의 문화재를 '이화의 '보물''로 엮어 한눈에 살펴보았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문화재

■ 국보 2건 2점

「청자 '순화 4년' 명 항아리」(국보 지정 예고)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초기 유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몸체는 무늬 없이 어깨 부분이 약간 넓고 긴 형태. 「순화 4년(淳化四年)」이라는 이름은 굽바닥에 새겨진 글자, 「순화 4년(淳化四年, 993년) 계사년 태묘 제1실에서 쓰는 의 식용 항아리를 장인 최길희가 만들었다」는 내용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시대 완형의 청자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제작 연도와 제작 목적, 제작자가 확실하여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 총독부 초기에 이미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알려졌으며, 일본인 수집가와 골동상 등을 거쳐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다. 1963년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었고 2019년 2월 국보 지정 예고되었으며 4월 최종 확정된다.



「청자 '순화 4년' 명 항아리」(국보 지정 예고)
고려 993년, 높이 35cm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국보 제107호)
조선 18세기, 높이 53.3cm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국보 제107호)

조선 시대에 크게 사랑받은 도자기는 백자였다. 무늬를 넣지 않은 순(純)백자 외에 갈색이나 흑갈색(철화), 푸른색(청화), 붉은색(동화)이 나는 안료로 그림을 그린 백자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미술평론가 유흥준은 그의 책『국보순례』에서 “풍만한 곡선이 매우 유연하면서도 늠름한 기상이 서려 있고, 얹은 푸른 기운을 머금은 우윳빛 백색이 고아한 기품을 자아낸다. 거기에 항

아리 전체를 화선지 삼아 두 가닥의 포도 줄기를 그린 구도의 배치부터가 일품”이라고 소개했다. ‘조선백자의 최고’, ‘이화여대의 상징적 소장품’으로도 손꼽았다.

■ 보물 7건 10점

『전)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탑』(보물 제351호)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사리. 승려의 사리 또는 유골을 모신 승탑은 불가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일반적으로 승탑은 사리 주인인 승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탑비와 함께 세워졌으며, 통일신라 말 깨우친 자가 곧 부처라는 선종의 인식과 함께 등장하여 크게 유행하였다. 이 승탑은 통일신라 말 고려 초에 활약한 승려 대경대사의 사리탑으로 전해진다. 대경대사의 승탑 비인 「대경대사 현기탑비」(보물 제361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통일신라 이후 부도의 전형적인 양식인 팔각원당형을 취하고 있으며 사자, 사천왕상, 주악천인상 등 조각이 화려하고 정교하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를 가지고 있어 조형미과 균형미가 뛰어나다.



『전)양평 보리사지 대경대사탑』
(보물 제351호) 고려 939년, 높이 237cm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보물 제352호)

『묘법연화경』은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전하는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불교 경전이다. 겹푸른 색의 종이(‘감지’)에 은가루를 아교에 개어(‘은니’) 쓴 『묘법연화경』 전체 7권 중 마지막 권이다. 고려 우왕 12년(1386)에 죽산군 부인이 시주하여 각연이 만들었다는 간행 기록이 책 끝부분에 자세히 적혀 있다.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7』(보물 제352호)
고려 1386년, 33.5×11.5cm, 길이 1,081cm

『청자 투각 돈(墩)』(보물 제416호)

등나무를 엮은 모양으로 투각하여 만든 고려 시대 청자 좌대 4점으로, 윗면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고려 시대의 청자 제작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작이다. 중국 남송 시대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의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고려 시대의 화려한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청자 투각 돈(墩)』(보물 제416호)
고려 13~14세기, 높이 48~50cm



「기사계첩 (耆社契帖)」(보물 제638호)
조선 1720년. 비단에 채색. 각 면 43×66.5cm

「기사계첩 (耆社契帖)」(보물 제638호)

조선 시대에는 70세가 넘는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과 예우를 위한 관청 기로소가 있었다. 숙종은 59세에 기로소에 들어갔다. 숙종은 그의 화갑을 기념하여 10명의 연로 대신과 함께 1719년 4월 17일과 18일에 잔치를 베풀었고 이 모임을 기념하여 그림을 그렸다. 「기사계첩」에는 기로소에 어첩을 봉안하는 모습, 신하들이 경희궁 숭전전에서 축하 글을 올리는 모습, 숙종이 경희궁 경현당에서 베푼 잔치의 모습, 왕이 내린 은잔을 받들고 기로소로 가는 장면, 기로소에 돌아온 신하들이 가진 연회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 평양성 축성 기록 글자」(보물 제642호)
고구려 589년. 19.5×36cm

「고구려 평양성 축성 기록 글자」(보물 제642호)

고구려 도성인 평양성의 공사에 관여했던 축성 책임자와 공사 일자, 책임 구역 등을 기록해 놓은 성돌의 파편이다. “기유년 5월 21일 이곳에서부터 아래쪽 동쪽을 향해 12리 구간을 물성소형 배○백두가 구축한다”라고 해석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서예사적으로도 강건함과 약동감 충만한 고구려의 필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유물로 꼽힌다. 조각난 평양성 성돌을 석고로 고정시켜 놓았다.



「백자 청화 소나무·대나무·인물무늬 항아리」(보물 제644호) 조선 16세기.
높이 47cm

「백자 청화 소나무·대나무·인물무늬 항아리」(보물 제644호)

항아리는 목이 높고 어깨가 양감 있게 둑글며 몸체 아래로 좁게 내려가다가 굽에서 나팔 모양처럼 살짝 퍼져 있다. 이런 특색 있는 형태를 가진 백자 항아리는 전하는 예가 드물다. 목과 굽 사이의 몸통에는 힘 있게 뻗어나간 소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그 원쪽에는 동자를 바라보는 한 인물의 모습을, 오른쪽에는 책이 놓인 탁자에 기댄 채 앞쪽의 대나무를 응시하는 또 다른 인물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넣었다. 대담한 구조와 능숙한 필치가 돋보이는 조선 전기 걸작이다.

「백자 철화 용무늬 항아리」(보물 제645호)

넓은 어깨와 굽격히 좁아드는 하체의 볼륨감 넘치는 항아리 표면에 구름을

배경으로 힘차게 날아가는 용을 철화 안료로 그렸다. 용은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지닌 상상의 동물. 백자에 장식된 용무늬는 왕실용으로 제작된 특정한 도자기에서만 발견되며 왕실의 위엄과 신성함을 드러낸다. 17세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왕실 의례용 백자 항아리 작품이다. 왕실 연향 때 정전 앞 좌우에 진열하여 꽃을 끊거나 술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



「백자 철화 용무늬 항아리」(보물 제645호)
조선 17세기, 높이 45.8cm

건물도 문화재! 우리 근대 교육의 역사 현장

■ 등록문화재 2건

파이퍼홀(등록문화재 제14호, 본관)

1935년 완공 당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석재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 고딕 양식으로 지었다. 당시 사무실, 교실, 실험실, 도서실, 식당 등이 있었고, 3층의 원쪽 공간에는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이 있었다. 한국전쟁 중 부분적인 파손이 있었지만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였다. 현재 총장실 및 행정 본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에 ‘애다기도실(이화여전 재학 중 1931년 난치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김애다 학생을 기념하는 기도실)’이 있다. 건물 이름은 기부자인 미국인 파이퍼 부부를 기념하였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적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창과문, 계단 난간, 바닥 타일까지도 여전히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파이퍼홀(등록문화재 제14호, 본관)
서양과 한국의 고전적 미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토마스홀(등록문화재 제679호, 체육관 A동)

캠퍼스 내에는 나란히 연결된 A·B·C 3동의 체육관 건물이 있다. 이 중 A동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체육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1935년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고딕 양식 석조 건물(외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사용, 내부 목조)로 지어졌으며, 1963년 체육대학에 무용과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외관과 공간 구조, 실내



토마스홀(등록문화재 제679호, 체육관 A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체육관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식의 원형 및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형미가 뛰어나다. 선교사로 대학 지원에 힘썼던 토마스 여사의 업적을 기려 건축 이름을 지었다.

참조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이대학보(<http://inews.ewha.ac.kr>)

이화여대(<http://www.ewha.ac.kr>), 유흥준, 「국보순례」(눌와, 2012)

도움말 : 이화역사관 손현지 학예사,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정선 학예사

사진 : 이화역사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제공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 캠퍼스 약사

■ 여성을 위한 최초 근대 교육 기관

1886년 5월 31일 밤 서울 황화방(지금의 정동), 여성 교육에 뜻을 둔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은 마침내 한 여학생을 맞이했다. 이 땅에 근대식 여성 교육이 출발하는 첫 장면이다. 학교 건물(현재 '이화역사관'으로 재현됨)이 완공된 것은 그해 11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1897년 한옥 교사를 헐어낸 자리에 붉은 벽돌로 된 메인홀, 1915년 싱프슨홀, 1921년 후퍼기념유치원, 1923년 프라이홀, 1932년 황화사(기숙사)가 건축되었지만, 늘어가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1935년 마침내 신촌에 부지를 마련해 캠퍼스를 이전했다. 본관, 음악관, 중강당, 체육관 등 당시 신축된 건물들은 최신 서구식 내부 시설에 고딕 양식을 현대화한 화강암 건물들이었다. 이듬해에는 대학원 별관, 가사실습소, 진선미관, 영학관 등이 완공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부산 피난 이후 1953년 서울로 복귀, 1956년 대부분의 교사가 복구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캠퍼스 건물을 설계한 월리엄 보리스(1880~1964)

1908년~1939년 32년 동안 17차례 한국을 방문하며 106건의 설계 작품을 남겼다. 특히, 1932년~1935년 신촌 캠퍼스 7개 건물을 설계하였는데, 모교 캠퍼스는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진 작품이었다고 한다. 1936년 그의 선교 보고서 『The Omi Mustard Seed』에 수록한 글 「Korea Again」에는 “세계 여행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이화여대는 세계 최고의 교육 설비를 갖춘 교육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썼으며, 1937년 그의 설계사무소에서 발간한 작품집에는 한국 내 건축으로 유일하게 모교를 소개했다.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고 김복희(사범과 21) 동창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고 김복희 동창이 2019년 삼일절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표창은 유족이 수여하였다. 고 김복희 동창은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백암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일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김태련(심리 60) 동창 **제18회 유관순상 수상**

아이코리아 대표 김태련 동창이 제18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관순상은 유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려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에 주는 상으로 충청남도와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제정했다.



이수옥(가관 75) 동창 **2018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공로상**

이수옥 동창이 '2018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공로상에 선정되었다. 이 동창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아티스틱수영(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종목담당관으로 이 종목을 국내 첫 도입한 인물이며, 아시아수영연맹 아티스틱위원회 사무총장, 대한수영연맹 아티스틱스위밍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공주(제약 77) 동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임명**

모교 약대 석좌교수 이공주 동창이 2019년 2월 19일(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2006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회장,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을 거쳐 2010년부터 이화여대 대학원장을 맡아 왔으며, 2011년에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회장을 맡아 6년 동안 이끌었다.



한동주(약학 81) 동창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취임**

한동주 동창이 2019년 2월 20일(수) 서울 2만여 약사를 대표하는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에 취임했다. 서울시약사회 65년 역사상 이화동창이 회장에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동창은 양천구약사회장, 양천구 보건의료심의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경희(국문 86) 동창 **은행연합회 상무 임명**

이경희 동창이 2018년 12월 31일(월) 열린 은행연합회 사원총회 동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화) 은행연합회 신임 상무이사에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모교 국문과 졸업 후 1986년 은행연합회에 입사한 이후 서무회계팀장, 감사실장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실장을 역임하였다.



우라옥(법학 89) 동창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명**

우라옥 동창이 2019년 2월 14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과 함께 예산과 균무평정 관리 등 사법행정을 수행한다. 우라옥 동창은 판사로 임용됐다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한 뒤 법조일원화 시행 첫해 다시 법원에 들어온 특이한 이력도 있으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유송화(경제 90) 동창 **신임 춘추관장 임명**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유송화 동창이 2019년 1월 9일(수) 신임 춘추관장에 임명되었다. 청와대에서 대언론 분야 최일선에 놓인 춘추관장 중 여성 춘추관장은 11년만의 탄생이다. 유 동창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경영기획실장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유림(사복 91) 동창 **서울YWCA 회장 당선**

이유림 동창이 2019년 1월 24일(목) 열린 서울YWCA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서울YWCA는 1922년 12월 9일 창립하여 애국계몽, 여성인권, 청소년, 소비자·환경, 복지와 나눔, 평화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 동창은 2005년부터 서울YWCA에서 청소년팀 위원장, 회계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하게 여성 운동을 펼쳐 왔다.



한영아(국제사무 94) 동창 **SPC그룹 부사장 취임**

한영아 동창이 2019년 2월부로 SPC그룹의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한 동창은 Asia Pacific Consumer Research Head- Institutional Investor에서 아시아 Best Consumer Team에 6년 연속 선정, Thomson Extel Survey, Asia Money - Best Analyst, Asia Pacific Diversity & Inclusion Council 멤버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Culture Carrier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선화(국제사무 98) 동창 **LG생활건강 M&A IR 상무 승진**

문선화 동창이 LG생활건강 M&A IR 상무로 승진하였다. 쌍용피앤지, 해태제과를 거쳐 2005년 LG생활건강에 입사한 문 동창은 IR 팀장, IR 부문장, M&A IR 부문장을 역임하였다.

총동창회 소식

2019년도 첫 정기 임원회 열려

2019년도 첫 정기 임원회가 2019년 2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 추경예산안’ 및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정영출(경영 72) 회계가 보고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각각 동의와 재청을 받아 통과되었다. 또한 3월 9일(토)에 예정된 정기총회 식사 제공 건에 대해 장단점을 다각도로 논의한 끝에 투표를 거쳐 임원 2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의 후 식사 대신 다과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안건으로, 지난해 치른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경숙(영문 70) 고문이 참석자들에게 떡 대신 빵을 제공한 이유를 묻자,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원래 따뜻한 떡을 제공했으나 교목실 요청으로 재학생들이 원하는 빵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최혜정(화학 88) 자연대 총

무는 “학창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동창으로서 예배에 참석해 보니 노래와 행사가 매우 감동적”이라고 말했고, 이경숙 고문은 “모교 교목실의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해 금년은 유난히 교수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몇몇 동창들이 보낸 ‘주니어 동창 모임 구성안’을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의견을 물었다. 배혜화(불문 77) 지역부장은 젊은 동창들의 언로는 ‘이화이연’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음을 말했고,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동창은 누구나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동창회의 일원이 되며 자신이 속한 과나 기 모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영란(체육 76) 감사는 “총동창회의 정통성과 조직법에 따라 모든 동창의 귀속점은 총동창회 하니”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월 13일(수) 전형 위원들에 의해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선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3월 정기총회 준비 사항 점검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

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3월 정

기 임원회가 열렸다.

대학 보고 및 회계 보고에 이어 정영출 회계가 2018 회계년도 결산안 보고를 하고 최은영(물리 87) 자연대학 회장의 동의와 황정인(컴공 90) 정보통신부장의 재청으로 결산안 보고를 받았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를 뒤 열릴 정기총회에 “각 과에서 최소 5명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고 참석자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입 동창 환영사는 순서에 따라 간호대학에서, 답사는 의과대학에서 하며, 축가는 인성희(종음 82) 동창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정기총회를 오전에 열고 점심을 제공하는 안건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차기 총동창회장단과 임원진들에게 위임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월 19일



제17대 총동창회 임원들

(화) 오후 3시 김광옥(식영 75) 부회장과 오숙영(사회 77) 사회대학 회장이 동석한 가운데 젊은 동창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의 구성 및 소속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젊은 동창들이 이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총동창회의 일원으로 기존 동창 모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교부 소식

선교부 겨울 수련회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대 다락방전도협회 1층 애찬실에서 선교부 겨울 수련회가 열렸다. 김은경(성악 64) 부장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인도했고 이후 장근희(기독 71) 부장이 간절한 기도로 대표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말씀 전에 허성희(성악 87) 부장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찬양을 특송으로 들려주었다.

특송 이후, 김종태 목사(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허성희 부장 남편)가 막5:25-34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해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이는 바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며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 그는 바로 ‘예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낫은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의 사죄의 능력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데, 바로 그의 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 주위를 맴돌며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즉,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한 예로, 실패한 것 같은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동굴 예배를 드리며『요한계시록』을 쓰며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광야 동굴, 사막 바위 틈 같은 부족한 곳을 지성소 삼아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설교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의 접촉 시간을 갖는 것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총동창회 선교부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화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더욱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다.

애찬 시간 이후에는 모교 특수교육과 이소현(특교 83) 교수의 ‘오타스타(AUTISTAR/Autism Special Talent And Rehabilitation: 자폐아의 특별한 재능과 사회 복귀의 약어’ 특강이 이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존재인 자폐인들이 자신들의 재능 재활 교육 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디자인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며 돋는 사회적 기업인 오타스타의 창립 배경과 사업 내용 등을 알려 주었다.(오타스타 참조 (<http://www.autistar.kr/>))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다. 이소현 교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사회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꿈꾼다고 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자폐아가 그림이나 디자인 분야에 있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재능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이들의 그림이나 디자인을 기업체에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이 사업에 대한 3가지 비전(비전 1 Love God, 비전 2 Love Society, 비전 3 Love Individual)을 말하며, 이 비전을 향해 이화의 교육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송사랑(융합보건 87) 선교사의 사역 보고 및 은혜 나눔 시간이 있었고, 참석자들은 기도 편지를 함께 나누며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충정공 민영환의 이야기, 책으로 펴낸
민명기 동창

“한 인간으로서의 민영환을 그려 보고 싶었어요”



풋풋한 미소를 간직한 민명기(교육 68) 동창은 반갑게 기자를 맞이하며, 인터뷰하자는 연락을 받고 선뜻 혀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예전에 코리아 헤럴드에서 겪어 봐서 알아요, 인터뷰 거절당하면 어떤 심정인지. 힘이 쭉 빠지거든요.”

오랜 직장 생활의 경험과 늦깎이 작가로서의 여유가 그런 배려심을 몸에 배게 한 걸까? 기자로서는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어쩐지 얘기가 통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의 활력소였던 안 교수님의 강의

“나의 학창 시절은 아무에게도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미건조했어요. 꿈에 부풀어서 입학했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의 연장 같았어요. 나 역시 너무나 평범하고 미미한 존재였고요.” 성격도 외향적이지 못한 데다 입학하던 무렵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고려대를 다니는 여고 동창은 재밌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내심 부러웠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자주 그 학교에 놀러가 그 친구와 어울리곤 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의 남편(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안인희 교수의 교육철학 강의는 평범한 대학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였다. “이화네트워크에서 『하린』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어 모임에 갔더니 안인희 교수님이 오셨더라고요. 9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멋지고 활동적인 분이세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감히 옆에도 못 가봤어요. 그게 지금 무척 후회가 돼요’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네가 우리 반에서 유일한 민가여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하시더라고요. 안 선생님의 남편분이 고 민완기 교수님이셨잖아요.”

32년의 직장 생활, 뱃속까지 워킹맘

민 동창은 대학 졸업 전날부터 코리아헤럴드에 출근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직장인 앤더슨컨설팅(현 액센츄어)에서 은퇴할 때까지 3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뱃속까지 워킹맘이었다. 워킹맘이라는 말이 대중화되기도 전에 민 동창은 이미 그 대열의 선두에 섰던 셈이다.

민 동창이 코리아헤럴드를 그만두고 둘째아이를 낳은 뒤 남편은 미국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남겨진 민 동창은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다. “모교 교사 자격증으로는 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 고교 평준화가 처음 시행되면서 각 학교마다 도서관 사서교사를 임용할 때여서 사서 자격증을 따고 배문고 사서교사가 되었지요.”

남편의 유학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1976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때부터 민 동창의 숨은 억척스러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당시 유학생에 딸린 식구들은 F2 비자여서 취업할 자격이 안 되었음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같이 구인정보를 뒤지며 일자리를 찾았다. 어느 날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문서정리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처음엔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 남편에게 혹시 이곳이 무슨 솔직 협회냐고 물었어요.(웃음) 그랬더니 시카고 대학 법대 바로 앞에 있는 미국변호사협회라고 알려 주더라고요.”

그 신문을 들고 무작정 그곳 인사과를 찾아가서 이력서를 냈지만 자신을 뽑아줄 것 같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사과장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 “사실 나는 F2 비자라 취업허가증이 없다. 하지만 반드시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남



아서앤더슨을 방문한 에드워드 히스 전 영국 총리와 함께(1987년)

편은 시카고 대 학생이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 시카고 대 학생이라는 말에 신뢰감을 느꼈는지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나 대형 카트에 서류를 싣고 다니며 제자리에 꽂는 문서정리 업무는 무척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다행히 1년 후에 사내 경리부서에 회계사무원 자리가 나서 또 무작정 그 인사과장을 찾아갔다. “이 일이 내겐 너무 힘들다. 나는 회계도 할 줄 안다”고 어필했다. 사실 가계부도 써본 적이 없었지만, 더하기 빼기밖에 더 하겠냐 싶어 그렇게 말했다. 회계 업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시카고 대에서 운영하는 직무 교육 야간 과정을 1년간 다니면서 회계 업무를 공부했다. 1983년 귀국 전까지 7년간 일했으니 운이 좋았다.

사회성이 부족한 성격이라더니, 어디서 그렇게 강한 생활력이 샘솟았는지 궁금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당시에는 무조건 부딪혀 보자는 심정이었어요.”

귀국한 후에도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1983년



앤더슨컨설팅 근무 시절 직원들과 함께(2000년)

부터 아서앤더슨의 멤버십 컴퍼니였던 국내 회계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아서앤더슨의 감사와 회계 업무가 분리되면서 앤더슨컨설팅(현 액센츄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2000년 가을까지 일하고 58세에 은퇴했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맞선을 보고 결혼하는 코스를 밟았어요. 직장 다니는 여자는 팔자가 세다는 편견이 있던 시절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삼촌과 고모가,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나를 많이 지지해준 덕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젊은 여성들이 아이 기르고 직장 다니며 애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 주고 싶어요.”

충정공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 싶었다

민 동창은 73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장편『하린』을 발표(2017년 6월)한 후 바로 1년 뒤인 2018년에 중조부 충정공 민영환의 일대기와 민씨 가문의 역사를 그린『죽지 않는 혼』을 발표해 부지런한

신인 작가로 인정받았다.

『하린』은 명문가의 종부였던 민 동창의 어머니 하린(본명 김성린)의 일생을 그린 이야기다. 충정공의 손자인 민 동창의 아버지 민병철(소설 속 병수)이 서른한 살에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당시 두 살배기였던 외동딸 민 동창(소설 속 은기)을 기르며 집안의 생계를 위해 어렵사리 삶을 이어가야 했다.

구한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충정공 민영환은 마흔넷의 나이에 항의의 뜻으로 「2,000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이 역사적 사건이『죽지 않는 혼』의 탄생 배경이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죽음을 결심한 그날부터 그것을 결행한 11월 30일까지 천 번을 더 이승과 저승 사이를 헤맸을 그분의 심경을 깊이 헤아려 보게 되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민영환을 그려 보고 싶어졌다.

“그분에 대해 내가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조선 조정의 몰락과 명운을 함께한 우리 민씨 집안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어떤 책무 같은 것을 느꼈어요. 이젠 그 책무에서 벗어났으니 홀가분합니다. 자유롭게 다른 분야를 써 봐야죠.”

민 동창의 글 쓰는 스타일은 단문을 자주 쓴다는 것. 짧은 문장 속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좋아하는 작가인 존 쿠체(J. M. Coetzee, 남아공 출신의 소설가, 2003년 노벨문학상 수상)의 소설들은 거

의 다 읽었

는데, 그의
문장은 아주
짧으면서도 날
카로운 칼날 같아
요. 은연중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셈이지요.”

사실 30여 년을 직장맘으로 지낸 민 동창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내가 글 쓸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자라난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계동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즈음 당시 한창 짓기 시작하던 정릉 문화주택 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우리 집 주변으로 소설을 쓰거나 문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왔어요.”

고 김의정 교수(소설가, 전 중앙대 예술대학장), 김용권 교수(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 고 이향녕 교수(소설가이자 법학자, 전 고려대 총장), 고 정한숙 교수(소설가,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등 쟁쟁한 유명 인사들이 이웃사촌이었던 것.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청소년기에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 그분들이 우리 집에 놀리와 삼촌과 약주하시며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를 보고 자라면서 글쓰기에 매력을 느끼고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내 인생에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이죠.”

초조함보다는 여유를 누리는 삶

“내 인생을 설계할 때 40대까지는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하자, 그 후 50대에는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다가 60대가 되면 소설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설계였던 거 같아요.(웃음) 60이 훨씬 지나서 소설을 쓰려니까 감성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자료를 열심히 찾아 놓고도 그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게다가 소설을 늦게 시작해서인지 내가 아는 이야기만 쓰게 되고요.”

요즘 민 동창은 자신과 같은 연배에 글을 쓰기



졸업식에서 (지금의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함께(1968년)

시작한 작가의 소설을 읽고 있다. “2040년을 무대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인데, 다양한 소재를 찾아내는 상상력과 감수성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다음 소설은 무엇을 쓰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좀 쉴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상당히 무거워요. 나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뭔가 서둘러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 초조함이 앞섭니다.”

그런 속내를 털어놓으면서도 영화 <인생 후르츠>에 등장하는 90세, 87세 노부부의 ‘슬로우 라이프’처럼 삶의 여유를 찾고 그걸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부부에게서 씨 뿌리고 경작하며 열매를 수확하는 기다림의 여유가 있다는 게 참 감명 깊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위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시작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면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민 동창의 집을 나서 돌아오는 내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상투적인 명언이 기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시면 연회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평생 한 번 납부.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9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1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9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2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한 번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 서울시무용단장 정혜진 동창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순간까지 춤을 출 것”



신임 서울시무용단장인 정혜진(무용 82) 동창은 국립 서울예술단 예술감독 재임 중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윤동주 달을 쏘다〉, 〈잃어버린 얼굴 1895〉, 〈뿌리 깊은 나무〉 등 창작 가무극 시리즈를 제작, 발표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 동창은 예술감독뿐 아니라 국가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이며 한국무용협회 이사, 세계무용연맹 한국본부 부회장과 정동극장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시무용단 단장, 최현 우리춤원 회장, 한국현대춤협회 부회장, 우먼스 회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안무가이자 중견 무용가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전통적인 우리 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여 우리 춤의 품격을 지키고 대중과 가까이 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 축하인사를 건넸다. 2019년 1월 17일(목)자로 발령받았다고 한다. 취임 배경을 먼저 물었다.

“단장 자리가 1년 4개월 간 공석이었지요. 정동극장에서 〈궁: 장녹수전〉이라는 상설 무용극을 만들며 활동하던 중 공채가 떠서 지원을 했습니다.”

공채를 통해 유능한 적임자를 맞게 된 서울시무용단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속춤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1976년 설립되었다. 당시 이름은 서울시립무용단이었는데 1999년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화하며 ‘서울시무용단’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무용단은 우리나라의 예술성과 전통적인 삶의 깊이와 문화를 일반 관객과 전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일지 초대 단장은 창작 무용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고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져 서울시무용단은 전통적인 춤사위를 응용하여 한국 무용을 재창조하는 한국 창작 무용의 산실이 되고 있다.

“저는 제게 ‘왜 춤을 추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어떤 춤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여 이를 표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오며 국가기관 및 단체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든 작품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동창은 78학번이다. 서울예고에서 문일지·최현 선생님께 춤에 대해 기본법을 배우고 모교에서 창작 무용을 전공했다. 창작 무용이 분류상 현대 무용에 속하는지 전통 무용에 속하는지 궁금해 하니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국의 현대 무용이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국 전통 무용으로 이 시대 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무용은 발레와 같은 외국 무용과는 사지나 근육의 사용, 호흡 등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테크닉)이 다릅니다. 한국 무용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원하는 춤을 만드는 것이지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문화도 발전합니다. 변화된 감각에 맞게 한국 무용을 현대적 개념으로 창작합니다.” 우리나라 창작 무용의 시발점은 이화여대였다. “현대 무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화여자대학교가 현대 무용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박외선 선생님부터 육완순 선생님 등과 함께 현대 무용을 배운 이화여자대학교 동창들이 우리나라에 현대 무용이 뿌리 내리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김매자 선생님, 정승희·박재희·이청자 선생님 등은 한국 무용의 현대화 작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김매자 선생님은 창무회를 조직하여 동창들이 이곳에서 활동하며 우리 것을 가지고 시대적인 춤을 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모교에서 다진 탄탄한 기본기

“대학 다닐 때 무용과에는 월례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창작을 해보며 안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대 경험을 넓힐 수 있는, 당시 이대에만 있는 시스템이었지요. 대학 4년 내내 매 학기 안무, 조명, 음악, 의상 등을 본인이 모두 해결하여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막연하고 힘들었지만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만들어 가다 보니 그룹, 솔로 작품 등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었습니다. 체육대학 홀 원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어요. 여기에서 꿈과 희망을 키웠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중에 다른 학교들에도 모두 도입되었어요. 우린 월례회를 통해 창작 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덕에 개인 무용단을 꾸리고, 안무를 짜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동창은 대학 졸업 후 바라던 유학 대신 모교 대학원에 진학했다. 창무회에 입단하여 창작 무용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춤을 배웠다. 유학보다는 전통춤 계승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980년 김천홍 선생께 춘앵무를 사사하고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황재기 선생께 우도 농악 중 소고놀이, 이정범 선생께 우도 설장고, 박병천 선생께 진도 강강술래, 진도북춤 및 춤 장단, 한영숙 선생께 승무, 살풀이, 이매방 선생께 승무, 살풀이, 호남 검무, 박재희 선생께 태평무를 사사했다. 1984년 김수악 선생께 진주 검무와 굿거리 기본을, 1992년 강선영 선생께 태평무, 즉흥무를

전수받고 1996년 태평무를 이수받았다. 1997년에는 김천홍 선생께 정재 이론을 사사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일(在日) 한국예술무용협회 이사장 정민 선생께 김초향류 살풀이, 북춤, 장고춤과 교방굿거리, 조용자 선생의 산조를 사사했다.

대학원에서는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당시 모교에는 박사과정이 없어 몇 년 후 성균관대 체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무용의 기본 동작법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기 위해 스포츠과학대학에서 역학을 전공했다. 이는 동작의 연결이 아닌 하나의 동작에 대한 힘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어서 애초 계획했던 바와는 달랐지만 이 분야의 공부는 시야를 넓히는 데 유익했다. 스포츠 선수 관리 등 무용 분야에 적용할 만한 점이 많았다.

수많은 무용 작품 발표하며 대중과 호흡

정 동창은 원로 무용가들을 사사하는 한편 ‘예원학교’에서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무용계의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그와 동시에 199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왔다. 한용운 시인의 시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 「나릇배와 행인」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무애(無碍)의 사상을 표현한 작품인 〈무애〉, 남한산성의 빼아픈 역사를 담은 〈돌의 거울〉, 국립무용단 정기공연 초대전 추천작 〈태허〉, 정동극장 개관 10주년 기념 〈성냥팔이 소녀의 꿈〉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5년 태평무를 모티프로 한 〈신(新)맞이 ’05〉는 2009년 제1회 대한민국 무용대상 솔로&듀엣 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국공립예술단 무용감독으로 추천되어 2010년까지 댄스컬인 〈오르페우스-뒤돌아보는 사랑〉, 〈15분 23초〉

〈신맞이 ’05〉

를 제작하며 무용의 대중화를 꾀했다. 2015년까지 서울예술단에서 〈윤동주 달을 쏘다〉, 〈잃어버린 얼굴 1895〉, 〈뿌리 깊은 나무〉, 〈이른봄, 늦은겨울〉 등의 가무극을 선보였고 예술감독 퇴임 후 연출한 한국형 가무극 〈큰선비 조광조〉, 2018년 정동극장 상설작품 〈궁: 장녹수전〉에 이르기까지 정 동창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작업들을 지속해 왔다.

“일 욕심도 많았고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짧았어요.”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던 정 동창이 어찌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을까? “제 결혼 조건은 ‘내가 하고 싶은 춤을 추는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조건에 맞는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춤에 전념할 수 있었다. 두 아이는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 주었고, 엄마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사회인으로 성장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매를 서 주었지요.” 대학원을 다닐 때 스승 김매자 선생이 정 동창을 경기초등학교 무용교사로 추천해



주었다. ‘선생님, 제가 결혼할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꼬마 중매쟁이는 예쁜 무용 선생님과 노총각 담임 선생님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 아이들은 열화 같은 성원을 보냈고 학교에서는 둘만 남아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안기며 은근히 밀어 주었다. 덕분에 정동창은 평생의 짹을 만났다.

어린 시절 무대 체질로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기던 정동창을 무용으로 이끈 것은 아버지다. 최승희 공연을 보고 춤에 매료되었던 아버지는 춤을 사랑했다. 부모님은 딸에게 무용을 권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다니는 무용학원에 갔다가 당일 바로 등록을 하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무용을 했다. 그는 춤을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한다.

정동창은 예원학교에서 가르치며 무용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퇴하고 인문계를 선택하는 것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다. “무용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무용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뮤지컬도 대중의 사랑을 받고 국립발레단은 교양인의 덕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한국 무용은 아예 관심 밖이었지요.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하여 40대가 되며 무용 작업



〈궁: 장녹수전〉, 정동극장

을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무애〉가 서울무용제 대상을 타게 되었다. 대상 수상은 단체장이나 교수가 될 수 있는 관문이기도 했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국공립 기관인 서울예술단 무용 감독에 추천이 되었다. 3배수 이상의 후보 중 단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그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무용을 만들고자 국공립 기관 무용감독이 되었다. 관객에게 다가서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3년 임기를 마치고 뉴욕대 비지팅 스칼라로 체류하며 연구를 하던 중 3개월 만에 서울예술단에서 예술감독 요청이 왔다. 그는 뉴욕 생활을 접고 이를 수락했다.

예술감독은 주제와 작품의 선택부터 마지막 무대 끝까지 작품 전체를 총괄하며 자기 색깔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작품을 해석하고 스태프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끌고 나가며 최종 결정을 하는 책임자다. 때문에 예술감독을 하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좋은 주제를 담은 스토리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서울시무용단에서는 주로 작가와 콜라보하여 스토리를 창작한다. 예술감독 당시 선보인 〈잃어버린 얼굴 1895〉의 경우도 기존 작품의 시놉시스를 받아 각색한 것이다. 남한산성 이야기인 〈돌의 거울〉은 치욕스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동창이 대본을 직접 썼다.

정 동창은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역사를 소재로 많이 다루어 왔다. 그는 역사는 되풀이되므로 우리 삶에서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역사 속 인물이나 상황을 추출하고 이를 극화하여 작품을 창작해 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다.

정 동창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은 <가문>이다. 태평무를 배우는 과정이 시집가서 충충시하의 가문을 잇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아 그를 표현한 작품이다. 흰 제사상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엄격한 춤(태평무)을 추는데 결국 본인이 마지막에 태평무를 추며 그분들이 추는 춤을 내가 잇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리허설을 마치고 선배들이 달려와 현대 무용도 발레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한국 무용이라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다. 이 작품은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낭떠러지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정 동창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작품은 <신(新)맞이 '05>이다. 여자의 일생을 그린 모노드라마로 다양한 스타일의 춤으로 구성된 정혜진 동창의 춤이 총망라된 30분 분량의 작품이다. 락 음악과 우리나라 태평무 가락 속에 전자기타, 보컬 등이 어우러진다. 정 동창은 작업을 할 때 무용에 맞도록 음악을 직접 작곡가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쓴다. 이와 같은 정 동창의 작품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쉬지 않고 준비하면 기회가 생긴다

정 동창은 몇 살까지 춤추고 싶냐는 질문에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순간까지 춤을 출 것”이라 답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라’고 당부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기회가 생깁니다. 자기를 내보이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저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후배들이 보는 것이지요.”

그는 그간의 경력을 토대로 서울시무용단에서 사활을 걸고 싶다고 밝힌다. “이전 서울예술단의 경험을 통해 서울시무용단에 와서 기반을 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예술단은 뮤지컬에 강합니다. 이를 통해 무용에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뮤지컬처럼 좋은 무용 작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까, 무용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연출과 작가 등 모두가 협업하여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그간 무용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담아 왔지요. 전 서울시무용단에서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시무용단에서 단원들에게 설득했던 것은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끌어가는 무용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안무가와 스태프가 협업하며 함께 창작 작업을 하며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의 꿈이 꽂힐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배 문인들이 닦아 놓은 터에서 맘껏 작품 활동을 펼치길”

탄생과 성장을 이끈 선배들

1986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해 활발한 활동과 성장을 거듭해 온 이대동창문인회(이하 문인회)는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모임이다.

1983년 현 문인회 고문인 김양식(영문 54, 인도박물관장, 제7대 회장) 동창이 고 강성희(영문 47, 희곡작가, 제2대 회장)·최귀동(영문 48, 시인 이자 불문학자, 제3대 회장) 동창의 적극적인 권유와 대선배인 고 조경희(문화 39, 전 정무제2장관, 수필가, 제10~12대 회장)·고 전숙희(문화 38, 전 계원조형예술대학 명예이사장, 수필가)·이봉순(문화 40, 전 모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시인, 제1대 회장) 동창 등의 격려에 힘입어 문인회 발족을 위해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가지며 논의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첫 모임은 1986년 2월 김양식 동창의 인도문화연구원(무교동) 연구실에서 열렸는데 김양식 동창은 당시의

이대동창문인회를 소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동창들. 왼쪽부터 주연아·이정자·김선주·조현숙 동창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이제야 부끄럽지 않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 대 출신 문인들의 연대가 성립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모두 기뻐했는지 흥분의 도가니였다. 참으로 오랜 염원이었던지라 감격스럽고 기쁨이 컸던 것이다.’ –『가을 속에 봄은 잉태되고』(2016년 창립 30주년 기념문집) 책머리에서.

현재 이 모임의 규모는 전체 회원 246명(주소불명 포함)에 해외 거주 회원이 28명이다. 그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00여 명 정도다. 장르별 회원을 분류해 보면 시 57명, 소설 54명, 수필 87명, 희곡 3명, 번역 9명, 아동문학 14명, 방송 8명, 시조 10명, 평론 2명, 동시 2명 등으로 문학의 전 분야에 걸쳐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고문 주연아(커미부 76, 수필가, 제23대 회장) 동창은 회원들의 활동 중 선배들의 활약상에 대해 “우리 회원들 중에 창립 멤버인 대선배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김현자(국문 66, 모교 명예교수, 평론가, 제21대 회장) 선배님, 김인환(불문 61, 모교 명예교수, 번역가) 선배님, 나영균(영문 49, 모교 명예교수, 번역가, 제13~14대 회장) 선배님 등이 열심히 일해 주셨어요. 특히 나영균 선배님은 고맙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임에 나오셨을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런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 모임이 아직도 진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개했다. 덧

붙여 해외 회원들의 활동도 눈에 띤다며 “주로 뉴욕, 뉴저지, 하와이, LA, 캐나다 등지에 거주하는 데, 의외로 하와이 문인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문인회는 한마디로 기라성 같 은 대선배들이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 놓은 터에서 후배들이 그 뜻을 받들며 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문학의 저변을 확장해 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훈훈한 모임이다.

작품집 발간과 이화문학상

문인회의 가장 큰 행사로는 뭐니 뭐니 해도 매 해 11월 하순에 열리는 작품집 출판기념회 및 이화문학상 시상식이다. 이 행사에는 문인회 회원은 물론 모교 총장과 문학계 인사들도 귀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준다.

작품집은 문인회가 창립되던 1986년 1집『긴 모리 잣은모리』부터 2018년의『내 마음이 연두로 물든들』까지 매해 발행되어 현재까지 31권(1987, 1993년 빠짐)이 차곡차곡 쌓였다.

고문 조한숙(국문 69, 수필가, 제24대 회장) 동창은 “문인회의 작품집은 회원들의 문학 활동을 독려하고 문인회 참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1994년에 만든 8번 째 작품집 『이화문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조 동창은 “『이화문학』은 시, 시조, 단편소설, 수필, 동화, 희곡, 평론 등 각 장르별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종합 문학잡지라는 의의가 있어요. 책의 표지도 강성희 선배님의 남편분인 유경채 화백께서 맡아 주셨어요”라며 당시 회장



2017년 작품집 출판기념회 및 이화문학상 시상식

을 맡았던 김양식 동창을 도와 자신이 총무로서 편집에 참여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아쉽게도 이런 잡지 형식의 작품집은 장르별 지면 할애의 불균형 문제로 더 이상 발간하지 못 했지만, 김양식 동창의 야심찬 기획 의도만은 특별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정 매수와 주제를 정해 테마 에세이 형식의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편, 이화문학상은 문인회 창립 후 10년이 지난 즈음 이화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문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과 원로 선배님들의 제안으로 1997년 제정되었다. 1회 신동춘(영문 53, 시인, 제4대 회장) 동창의『신동춘 시선집』 수상을 시작으로 2018년 21회 이승신(영문 72) 동창의 수필집『왜 교토인가』에 이르기까지 매해 훌륭한 작품들이 선정되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 자격은 등단 20년 이상, 작품집 3권 이상(선집은 제외)을 낸 회원 가운데 문인회 기여도를 참작하여 선정되며, 문인회 내부 문인 1명, 외부 문인 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철저하고 공정한 작품 심사를 거쳐 선택된다. 그 만큼 모교 출신 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어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다.

고문 김선주(불문 65, 소설가, 제20대 회장) 동창은 “이화문학상은 모교 출신 중에 빛나는 작가

분들의 창작 정신을 이어받고자 만들어진 상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탁월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어서 심사위원들도 우열을 가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특히 이화문학상 10회차인 2006년에는 ‘특별 기념’으로 3명의 장르별 공동 수상자를 선정했어요” 라며 전통 있는 문학상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제10회 이화문학상은 김영교(영문 63) 동창의 시 「너 그리고 나, 우리」, 이명환(영문 64) 동창의 수필 「지상의 나그네」, 김선주 동창의 소설 『송자소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10회차를 계기로 여러 회원에게 수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 번 선정된 회원은 다시 선정하지 않는다’, ‘공동 선정되었을 경우 선배를 우선으로 한다’로 문학상 선정 기준을 개정했다.

그 밖에 문인회의 정기행사로는 매년 봄가을 야유회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다. 야유회에는 보통 40~5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지난 2017년 4월 24~26일에는 창립 31주년 기념으로 일본 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조한숙 동창은 “일본 근현대 작가 7명의 생가 터와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왔는데, 우리 문인회에서 처음 기획한 해외 기행이니만큼 감회가 남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기행문은 31집 『그대에게 가는 꽃길』 1부에 실려 있다.

푸른문학상과 이화문예상 신설

현재 문인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회원들의 연령층이 자꾸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연아 동창은 “우리 문인회가 역사가 오랜 만큼 회원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26명이나 됩니다. 예전에 활발히 활동하시던 분들도 점차 건강상의 문제로 못 나오시



초이이화문학컬렉션 개막식에서

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임에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합니다”라고 진단했다. 현재 문인회는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로 문인회에 가입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혹은 문인회의 존재를 몰라서 못 나오는 후배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구상 중이다.

그중 하나가 신인들의 문학 활동을 고취시켜 문인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된 푸른문학상이다. 이 상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현 회장 이정자(기독 66, 시조시인) 동창은 “푸른문학상의 참가 자격은 모교 동창 중 만 5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되 후배들을 배려하기 위해 최근 졸업연도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문학상의 기준을 설명했다. 이 상은 문인회 가입 3년 이상 혹은 등단 10년 이상이거나 작품집 2권 이상 출간 한 경력이면 출품할 수 있으며 문인회 기여도를 참작하여 선정된다.

또 하나의 예정된 사업은 올해부터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화문예상’ 작품 공모를 하는 것이다. 9월 행사를 예정으로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이대학보》와 모교 홍보실 등에 작품 모집 광고를 낼 계획이다. 이정자 동창은 “이런 여러 행사를 통해 후배 재학생들에게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며 의욕을 나타냈다.

이정자 동창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기 계획은 문인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30여년간 이어 내려온 문인회의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그런 기록물을 회장 개인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실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 외에도 회원간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카페(<http://cafe.daum.net/ewhamunin>)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애착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

문인회의 자랑이라면 훌륭한 대선배들이 남겨놓은 탁월한 발자취를 빼놓을 수 없다. 이미 작고한 노천명(문과 34, 시인)·모윤숙(문과 31, 시인)·전숙희·강신재(가정 46, 소설가)·조경희·강성희·윤남경(영문 53, 소설가)·신동춘 동창들은 한국 문학계에서도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조경희 동창은 강화도에 ‘조경희수필문학관’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분들의 문학적 뜻을 계승해 현재 문인회 회원들도 문학단체장을 비롯해 각 장르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하나의 자랑은 모교 중앙도서관 3층에 모교 출신 문인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초이이화문학컬렉션’이 생긴 것이다. 2018년 10월 문인회의 창립 멤버인 김양식 동창의 기부로 그의 아호 ‘초이’를 붙여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문인회의 작품집을 비롯해 회원들의 개별 작품과 모교 중앙동아리 이화문학회의 작품집 등 약 540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어 도서관 이용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정자 동창은 “문인회를 만든 김양식 선배님은 우리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모교 문인 후배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뜻이 담긴 초이이화문학컬렉션은 우리로서는 아주 뿌듯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2018년 3월에는 모교 재학생 중 작가 희망생들을 위해 대외협력처를 통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동창들은 문인회가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문학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김선주 동창은 문인회에 대해 애정 어린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실 처음 문인회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어 갔는데 몇십 년 내려오다 보니 때로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기를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역사와 규모 면에서 최고의 모임이라는 자부심과 명성에 걸맞게 회원들이 문인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대동창문인회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교 문학인들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동창문인회에서 매년 펴낸 작품집들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알아두면 편리

명실공히 이화의 상징물로 자리 잡은 ECC(이화캠퍼스복합단지). 차를 갖고 모교를 방문한 동창이라면 으레 ECC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된다. 건물의 규모에 걸맞게 ECC의 지하 5, 6층에는 7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온 뒤에는 ECC의 구조나 출입구의 위치를 잘 몰라 미로에 갇힌 듯 자신이 나가야 할 출입구를 찾느라 해매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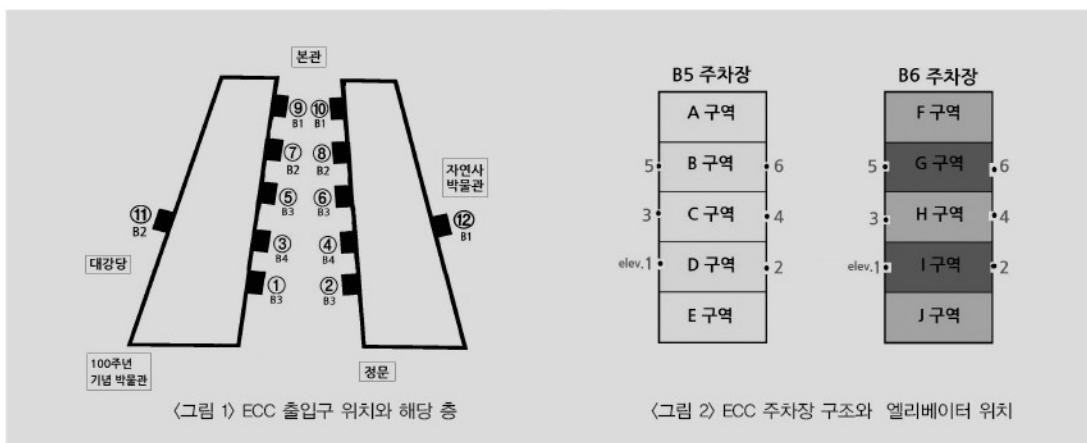
이처럼 ECC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여려모로 불편을 겪어온 동창들을 위해 어느 구역에 주차하고, 몇 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몇 번 출입구(건물 안내도에는 Gate로 표시되어 있음)로 나가야 최소한의 동선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ECC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개의 출입구와 7개의 엘리베이터

ECC의 출입구는 총 12개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와 그 출입구가 있는 층은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을 잘 보면 1, 2, 11, 12번 출입구를 제외하고 출입구의 번호가 커짐에 따라 점점 층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총 7기가 운행되는데, 그중 지하 5, 6층 주차장에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그림 2>에서처럼 6기(1~6번)이고, 나머지 1기는 옥외로 연결되는 이른바 선큰(Sunken,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움푹파낸 형태) 구조의 엘리베이터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까지 운행된다(위치는 지하 4층 스타벅스 매장 앞에 있다).

건물 출입구 번호와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번호는 각각의 위치에 따라 동일하게 매겨져 있다. 예를 들면 1번 엘리베이터 위로는 1번 출입구가 있는 식이다.

ECC의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 있는 만큼 1, 2, 11, 12번 출입구는 외부인의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11, 12번은 2018년 11월 14일(수)부터 출입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출입카드(학생증이나 교직원증)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단,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ECC 출입구의 위치와 출입구가 있는 층을 머릿속에 그렸다면 차를 가지고 모교를 방문해 원하는 장소를 가고자 할 때 어느 구역에 주차해서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번 출입구로 나와야 하는지 감이 올 것이다.

여기서는 총동창회의 행사가 가장 자주 열리는 대강당, 외부 세미나나 모임 장소로 이용되는 국제교육관(LG肯벤션홀), 자녀와 함께 관람하기 좋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모교의 행정 본부가 있는 본관, 학적부 등 서류를 뗄 수 있는 학생서비스센터 등 대표적으로 자주 찾아가게 되는 몇 곳을 선정해 각각의 장소까지 가는 최적의 동선을 알아보았다.

- ◆ 대강당 : 지하 주차장(지하 5층은 D구역, 지하 6층은 I구역 부근)에 주차한다. →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내린다. → 11번 출입구로 나온다.
-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국제교육관 : 지하 주차장(지하 5층은 D구역, 지하 6층은 I구역 부근)에 주차한다. → 1번 또는 2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에서 내린다. → 1번 또는 2번 출입구로 나온다.
- ◆ 자연사박물관 : 지하 주차장(지하 5층은 D구역, 지하 6층은 I구역 부근)에 주차한다. → 2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내린다. → 12번 출입구로 나온다.
- ◆ 본관 : 지하 주차장(지하 5층은 B구역, 지하 6층은 G구역 부근)에 주차한다. → 6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에서 내린다. → 삼성홀, 대산갤러리 방면, 스타벅스 앞에 있는 선큰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고 지상 1층에 내려 옥외로 나온다.
- ◆ 학생서비스센터 : 지하 주차장(지하 5층은 D구역, 지하 6층은 I구역 부근)에 주차한다. →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에서 내린다. → 1번 출구 방면 B303호에 있다.

그렇다면 다시 ECC 주차장까지 가는 동선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앞에



서 말했듯이 건물 입장을 제한하는 출입구가 있어 다소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강당,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국제교육관의 경우에는 12번 출입구가 가장 빠른 동선이었으나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3, 4번 출입구를 이용해 들어가야 한다. 자연사박물관 역시 4번 출입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행사가 열리는 날만은 출입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는 전의가 있었다. 다행히 본관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옥외에 있는 선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나올 때와 반대로 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본인이 주차한 뒤 이용했던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타고 내려가야 차를 주차했던 구역을 쉽게 찾아갈 텐데, 지하 1~4층까지의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지하 주차장에 표시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야 자신이 주차해 놓은 구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해지는 것이다. 차를 금방 찾기 위해 주차한 자리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놓기도 하지만, 주차장에는 일일이 표시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번호가 왜 주차장을 벗어난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지 의아했다. 총무처 등 해당 기관에서 각 엘리베이터 바깥쪽에 번호를 부착하는 문제를 한 번쯤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편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정문으로 나올 때 적지 않은 동창들이 정문 출구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호소한다. 후문과 서문으로 나가는 출구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정문으로 나가는 출구 표시는 중간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ECC 주차장에는 후문과

서문 출구만 있고, 정문 출구가 없다. 그래서 정문으로 나가려면 후문의 출구와 동일한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문으로 나가는 차량의 통행 흐름을 우회하도록 함으로써 정문 앞의 교통 혼잡을 피하고 학생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안내 문구가 미흡해 조금 아쉬웠다. 지하 주차장에 정문 출구 표시를 좀 더 눈에 띄게 하거나 '정문으로 나가려는 방문객들은 후문 출구를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설치한다면 주차장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이다.

행사 시 할인 주차권 구매해야

주차 요금은 입차 후 15분까지는 1,000원, 30분까지는 2,000원이며, 30분부터 2시간까지는 10분당 500원, 2시간 이후부터는 10분당 1,000원씩 할증된다. 정기주차권을 구입하려면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월권(4만 원)과 학기권(10만 원/15만 원)을 구입하면 된다. 또한 모교 행사나 교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할인 주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종류는 1,000원(2시간), 2,000원(4시간), 5,000원(24시간)권이 있으며 최대 2매까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총무팀을 경유(행사용은 증명 있을 시 생략 가능)해 주차관리실에서 구입하면 된다. 지하 4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주차권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규정에 따른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세상을 향한 힘찬 첫 걸음,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2019년 2월 25일(월) 오후 2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2,158명, 석사 1,209명, 박사 142명 등 총 3,5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 교무위원 등 주요 내빈과 졸업생 및 가족 4,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을 향한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제 이화의 따뜻한 울타리에서 벗어나 거친 세상을 마주하겠지만, 젊음에는 ‘실패의 자유’가 허용되며 실패는 다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 결실로 변화하는 세상이야말로 이화가 추구하는 가치이며, 이화인이라는 자부심 아래 저마다 가진 고유한 재능과 의지를 토대로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 도전을 면치 않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CBS 라디오 PD인 김현정(불문 00) 동창이 참석해 후배들을 위한 특별 축사를 전했다. 2008년부터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김동창은 2009년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앵커상, 2014년 제26회 한국PD대상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축사를 통해 “19년 전 졸업식장

에서 스스로를 대견해 했던 마음 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반으로 떨려 하던 그때가 생각난다”며, “PD 출신 국내 최장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학창 시절 교내 방송국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경험이 방송인으로서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반추했다. 또한 “세상에 나가면 수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응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부 졸업생 중 최연소자는 만 21세의 화학·나노과학전공 황지원 동창이며, 최고령자는 만 48세의 영어영문학전공 양



라안 동창이다. 수석 졸업자는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등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 총 11명이 선정됐으며, 북한이탈주민 3명과 재입학생 6명, 특수교육대상자 2명도 영광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최연소 졸업생인 황지원 동창은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했으며, 학부 졸업 후 모교 대학원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전공할 예정이다. 황 동창은 “좋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행복했고, 이화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졸업장을 받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동양화전공의 이예빈 동창은 “4년간 친구들과 교수님들 덕분

에 이화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실기 수업에서 큰 작품 활동을 할 때면 주변에서 많이 도와 줘서 감사했고,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늘 이화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도상국 여성 인재를 선발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 장학생 11명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에티오피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탄자니아, 태국, 폴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66명(학사 63명, 석·박사 103명)이 졸업장을 받아 이화에서 쌓아온 교육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행사

모교는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입학식을 갖고 3,378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입학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신입생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이화인들의 첫 걸음을 축하했다.

김혜숙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한 이화는 인문, 사회, 예술, 자연과학, 공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적인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문 기초 위에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입생 선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정유나 재학

생과 봉비치엔 차다(Vongvichien Chada, 태국) 재학생이 학생 대표로 나서 “자랑스런 이화인으로 학업에 정진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유나 재학생은 “아직 대학생이 된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입학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이화인이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기대가 된다”며,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으로서 전공 수업이 많이 궁



금하고 융합전공과 복수전공제도들이 매력적이라 도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입학식에는 모교의 개발도상국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EGPP) 장학생으로 봉비치엔 차다 재학생을 포함해 총 6명의 외국인 유학생(학부 3명, 대학원 3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신입생 축하 공연에는 남성교수중창단이 입학을 축하하는 축복송과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와 울동으로 흥겨운 축하 무대를 선사했다. 행사는 이화브라스앙상블의 〈Triumphal March from Aida〉 축주, 교가 제창 후 신입생 모두를 위한 응원의 박수로 마무리되었다.

입학식 직후에는 신입생과 학부모를 환영하기 위한 ‘이화사랑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됐다. 대강당에서는 신입생을 위한 ‘Welcome to Ewha’가 SBS 출신 개그우먼 임라라(체육 15) 동창의 사회로 마련됐으며, 재학생 게스트 성다은(사회 15입학)·박가영(교공 16입학)·김서연(행정 17입학)·오재원(호크마교양대학 18입학) 씨가 새내기를 위한 대학 생활 노하우 및 교내의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 체험담을 들려주었고, 신입생들이 참여

하는 이화 골든벨 등 다채로운 시간들이 펼쳐졌다. 또한 아이소이 대표 이진민(국문 86) 동창이 선배로 초대돼 대학 생활을 이화에서 시작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본인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바란다”고 조언을 건넸다.

ECC 삼성홀에서 열린 신입생 학부모 이화사랑 프로그램 ‘Welcome to the Ewha Family’에는 학부모와 가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방송국 EUBS 손소미 아나운서(국제학 17입학)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이화국악앙상블의 공연에 이어 신입생들이 수험생 시절을 같이 보낸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영상 편지가 띄워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김혜숙 총장은 이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며 “이화의 교육 환경이 자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를 믿고 그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백옥경 학생처장은 모교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문제, 이화에 바라는 제도 등을 자유롭게 논하며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모교 학군단 최초 장교 배출, 2019년 임관 축하 및 승급·입단식

모교 학생군사교육단이 설립 최초로 1기 학군장교를 배출했다.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19년 임관 축하 및 승급·입단식이 열렸다. 김혜숙 총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학군사관 후보생과 가족, 교내외 귀빈 150여 명이 참석해 1기(학군 57기) 30명의 임관

을 축하하고 2기(학군 58기) 승급 및 3기(학군 59기) 입단을 격려했다.

행사는 먼저 모교 김혜숙 총장 및 김영주 총동창회장, 진철중 대한민국 ROTC 중앙회 회장, 권혁신 육군학생군사학교장(육군 소장)의 표창 및 상장 수여식으로 시작해, 임관자 신고, 계급장 수

여, 승급 및 입단자 신고, 학년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여대 학군단은 이번에 첫 임관식을 치를 정도로 역사가 짧음에도 후보생들이 성실하고 훌륭하게 훈련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을 내어 이화여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였다”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30명 전원이 육군 장교로 임관한 것을 축하하며 후배 후보생들의 승급 및 입단도 축하한다”고 전했다.

홍경석 학군단장은 “후보생들은 학업 정진과 대학 시절의 낭만을 느껴야 하는 이화여대 학생인 동시에 2년 동안 매주 4시간의 군사 교육과 체력 단련, 방학 기간에는 임영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군인이기도 하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대학 생활을 이겨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총동창회는 2017년 첫 입단식부터 3년째 입단하는 학생들에게 훈련용 백팩을 선물하고 있다. 올해는 입단하는 학생들과 첫 임관하는 30명의 후보생까지 포함해 총 43개의 백팩을 선물했다.

이날 학군 57기 김지선 등 모교 학군단 1기 후보생 30명 전원이 학군장교로 임관했다. 학군단 임관 성적 최우수 후보생에 선정된 박지혜(서양화전공) 동창은 “임영 훈련, 아침 운동, 기숙사 생활 등 학군단에서 만난 동기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학군단이라는 멋진 기회를 이화의 후배들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으며, 이화여대와 학군단의 명예에 걸맞은 장교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활약한 모교 학군단 57·58기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계 훈련을 마치고 정식 학군단으로 입단하는 59기 후보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교 학군단은 2018년, 육군교육사령부가 전국 110개 학군단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 특히 학군 57기 조한나 동창이 단과대학(경영대)을 수석 졸업해 문무(文武) 모두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했고, 이외에도 ‘제17회 대학생 안보 토론회’에서 후보생 2명이 입상하였으며, 특급전사 5명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모교는 지난 2016년 2월 학군단 유치 대학으로 선정, 학군단을 정식 창설했으며 현재까지 3기째 후보생을 선발, 운영하고 있다. 2·3기 후보생 33명은 1~2월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 및 전투지휘자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훈련을 마침으로써 전원이 낙오자 없이 이날 입단 및 승급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1기 후보생들은 어려운 훈련과정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각 병과학교에서 4개월 간의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2019 교사임용시험에 이화인 270명 합격, 주요 지역 수석·차석 합격도

2019학년도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모교 졸업생 270명이 최종 합격했다.

모교 사범대학(학장 홍용희), 교육대학원(원장 한유경), 일반대학 교직과정(교직부장 이종원)을 통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과 2차 교직 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선발 인원이 예년에 비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교를 졸업한 합격생들의 비중은 작년과 변함없이 유지되어, 공립학교 교사 배출에서도 이화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중등교사의 경우 196명, 초등교사 37명, 유치원교사 20명이 합격했으며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는 1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중등 부문의 영어교육, 지구과학 교육 전체 합격자 중 약 10%가 모교 출신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역별 수석 및 차석 합격이 이어졌다. 2016학년도부터 3년 연속 서울지역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수석을 차지한 데 이어 2019학년도에도 서울 지역 유아특수교육 수석(이세인 동창, 특교 19) 및 차석(윤신명 동창, 특교 12)을 차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임상은(특교 19) 동창이 유아특수교육 수석으로 합격했다. 과학교육 수석 및 차석 합격자도 눈에 띈다. 이서령(과교 18) 동창은 서울 지역 지구과학교육 수석, 인천 지역에서는 문인정(과교 18) 동창은 물리교육 수석, 김미림(과교 15) 동창이 지구과학교육 차석, 주민지(과교 18) 동창이 부산 지역 화학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특수학교(유치원) 임용시험 서울 수석을 차지한

이세인 동창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과 현장에 계신 최고의 특수교사 선배님들, 준비된 예비 교사인 동기들이 있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교육관 임용고시실과 중앙도서관 및 학문관 무료 프린트 등 다양한 학생복지 서비스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합격 비결을 전했다. 또한 지구과학교육 서울 수석을 차지한 이서령 동창은 “이화에서 진행되는 임용고시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해 선배님들이 이 직접 전해 주는 합격 수기를 들었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고 “‘나는 무조건 불는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외에도 임하늘(사회과교육 14) 동창은 서울 지역 지리교육을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고민지(외국어교육-영어 15) 동창이 제주 지역 영어교육을 차석으로 합격했다. 서울 지역 미술교육 수석(김유나 동창, 교대원 15) 및 차석(김해니 동창, 교대원 18), 강원 지역 미술교육 차석(박현기 동창, 교대원 17) 역시 이화인이 차지했다.

모교 사범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우수한 교원 양성을 위해 미래-융합형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네 차례(1998, 2004, 2010, 2015년)에 걸친 국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국내 최고 최대의 교원양성기관임을 확인했다. 2019년에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임용 특강 및 합격한 선배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임용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홀 스트릿 교회

홀 스트릿 교회는 클라네클리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 URC 교회(개혁교단)와 연합한 교회로서 총 등록 교인 수가 84명인데 매주 60여 명이 출석합니다. 지난달 추수감사 예배 후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했는데 다른 교인들이 만든 음식과 저희가 만든 불고기를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 놀이와 게임, 공작 활동 등 어린이 클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고, 8명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계시며 저희 가족도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이 지역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점심을 제공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하여 지역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적어도 영양가 있는 점심을 학교에서 무료로 먹을 수 있는데, 방학 중에는 먹을 수 없으니 우리 교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12월에 또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겁

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봉사하는 성도들(저희들도 부엌에서 도울 예정)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매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빅토리아 로드 교회

빅토리아 로드(Victoria Road) 교회는 12년 전에 제가 다녔던 모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때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는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연로하셔서 약하지만 저희들을 가족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 사는 한인 선교사 한 분이 한 달에 두 번씩 예배 반주로 섬겨 주셔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수요일에는 지역 전도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함께 간단한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고 메시지를 듣는 카페 처치를 업니다. 이 시간에 주일 예배에 오지 않는 지역 주민 두세 명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모임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

석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월 1회)을 곧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폰타둘러스 웨슬리 교회

폰타둘러스(Pontarddulais)는 클라네클리에서 동북쪽으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특이하게도 웨일즈어와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교단별로 따로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회가 2배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교파와 언어를 초월하여 연합해서 불우이웃 돋기 행사를 하는 등 서로 돋고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장로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웨슬리(Wesley) 교회는 작은 교회로 10명 내외의 성도들이 거의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중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지만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리포트 교회

베리포트(Burry Port)는 클라네클리 외곽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베리포트 교회는 작고 열악하지만 20대 젊은 청년이 3명이나 다니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메시 처치(공작 활동과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에는 옆 동네 키드 웰리 감리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와 김 선교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꼭 부모님들도 같이 참석해야 하기에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 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석하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글·김명희(특교 90)

♥ 기도해 주세요 ♥

1. 홀 스트릿 교회와 빅토리아 로드 교회, 폰타둘러스 교회와 베리포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2. 클라네클리에 있는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지역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완전히 삶이 바뀐 엣 친구 엔드류는 마약중독자였던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리더로봉사하고 있고 마약중독 재활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엔드류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4. 친구 나이젤은 본인의 나약함과 실수로 자주 넘어집니다. 나이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5. 엣 친구였던 마가렛 할머니는 다니던 클라네클리 장로교회가 2, 3년 전에 문을 닫은 이후로 교회에 안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로 출석하도록 인도하소서.
6. 성령이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성수에게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아토피가 호전되도록 도와주소서.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음악대학

회장__임진(작곡 72)

2019년 사업계획 논의

2019년 1월 30일(목) 12시 라쿠치나에서 임원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2019년의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2월 13일(수) 한우리 한정식에서 있었던 회장단의 소모임을 통해 음악대학 동창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2월 26일(화) 캐세이호에서 윤승현 음대 학장, 윤금희 명예교수, 임진 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의 선생님의 추모음악회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019년에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음대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에 혼신할 것을 다짐했다.



2019년에 이루어질 다양한 행사를 논의한 음대 동창회

조형예술대학

회장__봉지희(섬예 85)

녹미회 동창총회 개최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인 녹미회는 2019년 2월 12일(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프리스 커뮤니티 홀에서 2019년 제30대 녹미회 동창총회를 개최하였다. 역대 조형예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던 선배들과 각 과 동창회장,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감사로 전 기수인 29대, 28대 회장이 참석하여 회계 보고를 받았다.

이날 30대 조형예술대학 동창회의 2018년 연간 활동 보고와 선교부 활동 보고, 각 과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차기 회장으로 신영선(장미 88) 동창을 선출하였으며 교가 제창을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녹미회 동창총회에 참석한 조형예대 동창들

회장__ 이미애(약학 79)

임원회 및 신년 하례회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와 2019년 1월 8일(화) 오전 11시 선교 예배를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각각 가졌다.

1월 24일(목) 오전 11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5층 토파즈에서 임원 46명이 참석하여 임원회 및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및 경과 보고가 있었고, 최초 이대 약대 출신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 한동주(약학 81) 동창이 단합된 약대 동창들의 선거 지원에 대한 인사를 하였다.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소 후원회와 개국동문회 경과 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특별 중창 공연(〈My Way〉, 〈O Mio Babbino Caro〉, 〈아름다운 나라〉)이 있었다. 이어서 케이크 커텅을 하였고, 오찬 시간에 100세 건강 비법 소개, 훈훈한 덕담, 새해 인사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2월 12일(화) 오전 11시 선교 예배를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회의실)에서 가졌다.

2월 21일(목) 오후 3시, 모교 ECO극장에서 신입 동창(70회) 환영회가 열렸다. 동창회 임원 24명과 유례없이 많은 신입 동창 82명이 참가하여 선후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개최한 약대 동창회

배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선배들이 손수 팝콘을 튀기고 커피를 담아주는 훈훈한 신입 동창 환영 분위기가 온 행사장에 퍼졌다. 신입 동창 대표의 입회 선서와 회장의 환영사 및 임원 소개가 있었다. 김순영(약학 62) 고문의 신입 동창을 격려하는 축사에 이어 신입 동창의 답사가 있었으며, 입회비 증정이 있었다. 특히 신입 동창 전원의 입회비 납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2부 색소폰 4중주 환영 공연을 즐긴 뒤 제3부 약학과 70회 창립 총회에서 회칙 통과 및 신입 동창의 회장 등 임원 선출을 하였다. 신입 동창과 임원들의 기념 촬영도 있었다. 참석한 임원들은 회장 주최 저녁 만찬에 초대되었다.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연락 주십시오!

《이화동창》이 반송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 _ 김혜정(72)

'영학회의 날' 변화 모색

영학회에서는 2019년 2월 12일(화) 원로 교수 및 고문을 모시고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 이날은 조정호(53)·김승숙(55) 교수, 김창영(74)·이정숙(77) 강사를 포함하여 모두 16명이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 영학회의 활동 보고와 아울러 2019년 한 해의 행사 계획에 대한 김혜정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올해 5월 29일(수) 예정된 '영학회의 밤'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낮 시간에 진행하는 '영학회의 날'로 변화를 가져 보기로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해마다 기 간사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에 한 번



신년 하례식 모임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씩 진행하는 아우팅이 소문을 타면서 나날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3월 16일(목)에 있을 봄 아우팅은 푸른 솔숲을 지닌 도심 속의 휴식처이자 역사를 품은 선정릉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이 날의 알차고 즐거운 봄나들이를 위한 세부 계획과 사진 답사 등은 새로 꾸려진 아우팅 팀에서 맡아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_ 배혜화(77)

뮤지컬 공연, 성황리에 끝마쳐

불문과에서는 2018년 11월 30일(금)부터 12월 1일(토)까지 뮤지컬 <1789 Les Amanis De La Bastille>를 공연하였다. 학부 학생들은 Sylvie



불문과 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

Mazo, Emmanuel Nicolas 두 교수의 지도하에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불문과 동창회는 매년 불문과 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을 후원하고 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봉무(72)



신년 기간사 모임에 참석한 독문과 동창들

신년 기간사 모임에서 동창회 행사 논의

2019년 2월 22일(금) 강남 웨스틴호텔에서 독문과 신년 기간사 모임이 열렸다.

이번 모임에서는 4월 예정된 독문과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서 독문과 원어 연극반(Auf die Bretter)의 공연 <어떤 소송>의 동영상을 감상하기로 결정했다. 원어 연극반 13기 단장은 독문과 동창회의 후원에 감사하는 손 편지를 공연 사진과 함께 보내왔다.

5월 31일(금) 이화 창립 기념일에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맞는 동창들이 총동창회의 오찬 초대장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당 기 간사인 정진원(69) 동창과 이경순(89) 동창이 최신 주소록을 작성하는 수고를 맡아 주었다.

수년간 독문과 재학생을 위해 연간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장학금을掏出한 김정옥(69) 동창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4월 독문과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장학재단(이사장 김정옥 동창)으로부터 박사학위논문 장학금을 지원받은 이화진(96) 동창이 강연할 예정이다.

11월 독문과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에서는 오페라 해설가이며 『사랑과 죽음의 아리아』, 『오페라,

행복한 중독』의 저자인 이용숙(84) 동창이 강연하기로 했다. 특히 연말에는 많은 동창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창회 회장단이 편지 등을 보내 독려하기로 논의하였다.

26기 기 간사 이정랑(92) 동창은 20여 년 만에 동기회를 열었으며, 오랫동안 만남이 없었음에도 많은 동창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앞으로 매달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학과

회장__한상혜(73)

사학과 동창회지 《사우회보》 배부

2018년 12월 13일(목) 용수산에서 송년회를 겸한 간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고문들이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여 후배 동창들을 격려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들을 회고하며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2월 28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신년회를 겸한 모임에서 각 기의 간사들은 덕담을 나누며 올 한해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새로 발간된 《사우회보》 14호를 각 기 간사

들에게 배부하였다. 한상혜 회장은 이번 발간된 『사우회보』가 동창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학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사우회보』는 4년마다 발간하고 있는 사학과 동창회지다. 회장 인사, 올해의 이화인 소감, 답사기, 동창들과의 만남, 박사학위 논문 소개, 동창 사업 보고와 함께 동창회의 연혁 등을싣고 있다.

사회학과

회장__오숙영(77)

브루나이 여행 다녀와

2019년 1월 29일(화)부터 2월 3일(일)까지 5박 6일간 32명의 사회학과 동창들이 브루나이로 여행을 다녀왔다. 사회학과 최초 여성 대사로 임명된 윤현봉(82) 브루나이 대사를 응원하고 동창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여행으로, 59학번에서 83학번까지의 선후배들이 함께하여 행복하고 귀한 추억 여행이 되었다. 2018년 사회학과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던 선후배가



브루나이로 여행을 다녀온 사회학과 동창들

이번 여행을 통해 더욱 돈독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여행 내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했다. 동창회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여행팀을 만들어 매년 나들이할 것을 기약했다.

통계학과

회장__송유정(94)

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통계학과는 2018년 11월 24일(토) 모교 LG컨벤션홀에서 통계학과(유재근 학과장), 학부 동창회, 대학원 동창회 공동 주관으로 130명이 넘는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계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현직 통계학과 교수도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장윤재 교목실장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이외숙 자연과학대학장의 축사, 유재근 통계학과 학과장의 통계학과 현황 및 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계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가장 역사가 짧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 선호도가 높은 과이고, 대학원 활동과 업적 면에서도 서울대에 이어 국내 2위 수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다는 학과장의 소개에 동창들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소병수 교수는 '직장인으로서 통계학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통계학이 계속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말했고, 특히 실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R프로그램이 직장인으로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학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통계학과 동창들



송년 모임을 개최한 물리학과 동창회

장점이 있다며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과 교재를 소개해 주었다.

학부 동창회장과 대학원 동창회장은 동창들이 통계학과와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통계학과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기금’과 ‘통계학과 발전기금’이 새롭게 조성되었음을 알리며 기금 후원이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안내하였다. 이날 동창들이 납부한 회비 전액은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기금’에 적립하기로 하였다.

만찬 중에는 통계학과 발자취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만찬이 끝난 후에는 동종 업계 선후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선후배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서 물리학과 송년 모임이 있었다. 50여 명의 선후배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초대 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코너가 마련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신승애(63) 모교 명예교수의 80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한국음악과

회장 __ 최혜정(90)

학과 정기 연주회 후원

2018년 11월, 한국음악과 정기 연주회를 동창회에서 후원하였다. 12월에는 총동창회 주최 ‘이화인의 밤’에 참석하였다. 2019년 2월, 신년 회의를 개최하고 동창회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물리학과

회장 __ 최은영(87)

송년 모임으로 선후배가 한자리에

2018년 12월 7일(금)에 바나나프라이 강남점에

조소과

회장 __ 나진숙(84)

정기총회와 세미나 개최

2018년 연말부터 조소과 동창회는 반가운 소식

과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수) 서울 종로구 관훈동 소재 갤러리 KOSA ART SPACE에서 이정자(66) 동창의 조각과 삶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조소과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창들의 작품 활동을 도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14일(금) 조소과 박일순(74) 명예교수는 제 15회 김종영 미술상을 수상하여 동창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다. 박일순 명예교수는 자연, 생명, 여성, 환경을 주제로 김종영 선생의 불각(不刻)의 미(美)와 일맥상통하는 작업 과정을 선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김종영미술관에서 있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19년 2월 20일(수) 인사동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인 가운데 동창회 및 조각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 동창회 및 조각회의 회무 및 활동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고, 2019년에 진행될 정기전과 세미나 일정 등의 사업계획안과 동창회 및 조각회가 보다 진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각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 __ 박희전(90)

신·구 임원진 만남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3시 신사동 리치에서 섬예과 역대 동창회장, 전임 회장 및 임원진과 신임 회장 및 임원진들의 만남이 있었다. 전임 임원들이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성으로 이화와 섬예과를 위해 노력한 열정적인 수고에 감사하고, 임원들 간의 역할 분담 및 인수인계를 하였다. 앞으로 신임 임원들이 이화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예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 선후배들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영란(77)·봉지희(85)·이상미(88)·전영선(88)·서원(02)·박희전(90)·이상영(94)·최유리(96) 동창.



섬예과 동창회 임원회의

생활미술과

회장 __ 김곡미(87)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

2018년 12월 15일(토)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클



송년회를 개최한 생미과 동창회

럼에서 생미과 송년회가 열렸다. 많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함께 일 년 동안의 동창회 활동을 돌아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데렐라 주인 찾기 미니스커트 이벤트부터 선배들이 협찬해 준 상품들로 인해 더욱 풍성한 송년회가 되었다.

장식미술과

회장__정경선(82)

4학년 학생들 졸업작품전 열려

모교 ECC 대산갤러리에서 2018년 12월 18일(화)부터 23일(일)까지 열린 동안 패션디자인전공 4학



졸업작품전에 참여한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

년 학생들의 졸업작품전 '25th Esprit Nouvean Premier'가 열렸다.

도예과

회장__최혜림(85)

도림회 정기총회 개최

2019년 2월 14일(목)에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도예과 동창회인 도림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임원단 소개와 지난 임원단 감사 인사와 함께 2018년 회계 보고, 사업 보고, 동창 회원 활동 보고가 있었다. 이후 식사 시간을 통해 동창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도림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도예과 동창들

무용학과

회장__윤덕경(76)

송년 행사에서 만찬과 어울림의 시간

2018년 12월 2일(일) 오후 5시 서울 프리마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송년 행사 '2018 이화여대 무용과 동창회 빛나는 밤'을 개최했다. 배우 손병호



송년 행사에 참석한 무용과 동창들



신년 하례 행사를 개최한 유아교육과 동창회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동창회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와 만찬, 어울림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으며, 모교 무용과뿐 아니라 한국 무용계 발전에 공로를 세운 무용가 육완순(체육 56)·김매자(체육 66) 전 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유청옥 회장의 인사, 이정환(교육 55)·이은화(59)·이기숙(72) 은사의 덕담, 학과 및 부속기관장의 소식 전달, 졸업 10·20·30·40주년 기념 동창축하 및 신입 동창 환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순서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4대 동창회의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하여 통과되었고, 유청옥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후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3부 순서로 남성 3인조 팝페라 그룹 '에이스앙상블'의 공연을 관람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고, 임희옥(76)·김샛별(10) 동창이 후원한 물품의 경품 추첨 행사, 넌센스 퀴즈 등의 순서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1월 11일 신년 하례 행사를 마련하여 은사님들께 새해인사를 드리고, 선후배 동창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회장 _ 유청옥(88)

동창회 신년 하례 행사 및 정기총회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는 2019년 1월 11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현직 교수 및 동창회 전·현직임원 등 8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사(퇴직 교수)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신년 하례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는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이화 창립 133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

2019년 5월 31일(금)에 모교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3주년 동창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졸업 30주년(1989년 졸업) 및 50주년(1969년 졸업) 동창들의 재상봉 및 '올해의 이화인' 추대 행사도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 동창회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계재

남가주(LA) 지회

회장__이보경(생미 80)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2018년 12월 9일(토) 오후 5시 LA 다운타운에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여 명의 동창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보경 동창이 회장을 연임하게 되었고, 임기를 마치는 장계원(문정 76) 이사장에 이어 박신화(기독 70) 부이사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창회장으로 수고한 장경해(피아노 75) 동창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3명의 동창 자녀들에게 남가주 동창회 장학금(3,000달러)이 수여되었다. 이로써 2018년 남가주동창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9명이 되었다(국제재단을 통하여 남가주 출신 학생들 2명(4,500달러), 모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1만 달러)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수학경시대회에서 4명의 여학생들에게 '이화여대상'을 수여하였다).

정현숙(체육 87) 총무가 야심차게 준비한 '추억의 슬라이드쇼'는 이대 학창시절 꽃처럼 아름다웠던 남가주 동창들의 모습과 현재의 원숙한 모습을 대조해 보여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순서는 한나리(체육 92) 동창의 사회로 흥겨운 오락의 시간을 가졌다. 성기순(섬예 69) 동창 부부의 볼룸댄스, 김종숙(성악 00) 동창의 소프라노 독창과 듀엣, 김향란(한음 11) 동창의 가야금 산조, 그리고 동창회 임원들의 그룹댄스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 송년회는 예년과 달리 미리 참가비와 동창회비를 완납한 완전 예약제로 진행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2019년 첫 '이화인을 위한 강좌'에서는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종이 무궁화꽃 만들기를 배웠다. 커다란 한반도 벽화를 무궁화꽃으로 장식하는 자원봉사도 겸하게 되어서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송년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뉴질랜드 지회

회장__남가실(간호 76)

BBQ 파티 송년 모임

2018년 12월 8일(토),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동창회를 섬기게 된 새 회장단(회장 남가실 동창, 부회장 윤희자(교공 79) 동창) 주최로 남가실 회장 집에서 송년 모임을 열었다. 뜨거운 여름의 크리스마스인 땅에서 초록과 빨강, 하얀 칼라로 맘껏 멋부린 동창들이 밝은 모습으로 함께했다. 파란 하늘, 낯은 구름이 잔잔하게 깔린 가운데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가 있고, 꽃도 나무도 잔디도 풍성한 여유로운 풍경 속에 29명의 동창이 배우자들과 동반 참석하여 BBQ와 담소를 즐기며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동창들은 서로 반가운 소식들을 풀어 놓으며 20대 새내기들처럼 까르르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아나바다'를 위해 기꺼이 물품을 도네이션 해 주었으며, 서로가 2019년의 작은 소원을 나누고 선물 교환을 하였다. 또 제비 뽑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모두 긴장하고 설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인 회비 중 일부로 작은 선물을 사서 동창 모두가 나누며 작은 것에 기



BBQ 파티로 송년 모임을 개최한 뉴질랜드 지회

빼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화인의 소녀 같은 모습도 보았다. 또한 한 해 동안 빠짐없이 동창회에 참석한 동창은 회장으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이화인의 노래로 모임을 마무리할 땐 성숙한 여인으로 어머니로 할머니로서의 기개가 우렁차서 이화인임에 감격하며 기해년 2019년을 주님께 감사하며 희망으로 맞이하였다.

라스베이거스 지회

회장__민순기(사회 70)

숨겨둔 노래 실력 뽐내

2018년 11월 28일(수) 라스베이거스 지역 Korean Fellowship Lutheran Church에서 김영미(의학 67) 동창의 '아름다운 대화의 기술을 통한 건강 활성화, 사람을 얻는 효과적인 소통방법'에 대한 특강을 많은 동창들과 라스베이거스 지역 교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토) '702 karaoke'에서 부부 동반으로 30명이 모여서 숨겨 놓았던 노래 실력을 과시하는 한편 서로의 돈독한 우애도 확인하였다. 새해에도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다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마감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길 다짐하는 라스베이거스 지회

시드니 지회

회장 __ 신은섭(법학 84)

새해 첫 뜻깊은 만남

2019년 2월 9일(토) West Pennant Hills에 위치한 최미리(서양 91) 동창 집에서 시드니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시드니 동창들은 윤세순(식영 72) 동창의 「빛과 모습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도서 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책이 출간되기까지의 과정과 책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윤세순 동창은 40여 년간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맞이했던 빛과 그 속에 비친 모습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고, 자리에 함께한 많은 동창들이 공감하며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알뜰 바자회’가 개최되어, 동창들이 필요한 물품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정을 느끼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3월 9일(토)에 예정된 이승신(영문 72) 동창의 시드니 강연회 및 5월 정기 동창회에서의 귀한 만



최미리 동창의 집에서 새해 첫 모임을 가진 시드니 지회 동창들

남을 기약하며 이날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시애틀 지회

회장 __ 신경림(장미 80)

연말 파티와 새 지회장 선출

2018년 12월 2일(일) 연말 파티로 51명의 동창과 배우자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말 파티에 앞서서 2018년 마지막 총회를 열어 1년 동안의 사업 보고를 마친 후 2019년 시애틀 지회장으로 신경림 동창을 선출했다. 신경림 동창은 2019년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을 겸임한다.

2019년 1월 10일(목)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이해현(문정 74) 동창을 선출하고 새 회장 및 임원단의 인준을 거쳐, 1월 16일(수) 총회를 열어 신·구 임원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임원진으로 박미경(국문 71) · 이해령(약학 85) 부회장, 박연희(섬예 89) 서기, 이해연(국문 02) 편집부장이 선출되었고 박정혜(체육 71) 동창이 2019 시애틀 북미주지회 연합회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게 되었다.

또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시애틀 지회는 한국학의 관심을 높이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워싱턴 대학의 협조를 받아 한국학 전공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8년 장학금 수여자는 라토야 젠뱁티스트(Latoya Jnbaptiste)로, 워싱턴 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시애틀 지회는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Go Green,



연말파티에 참석한 시애를 지회 동창들

'Ewha!'라는 주제로 시애틀 근교 벨뷰 힐튼(Bellevue Hilton)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진실과 선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화인의 정신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데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취지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뜻깊은 시간도 갖고자 한다.

시애틀은 '에메랄드 시티'라고 별칭할 만큼 산과 호수, 숲으로 가득한 'Green City'이다. 2019년 가을, 매일을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 가는 고국의 여러 동창들도 아름다운 시애틀의 자연 속에서 함께 힐링을 하고 삶의 신명을 채우며, 이화의 정신을 살려 'Go Green'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생각들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애틀랜타 지회

회장__김영례(심리 79)

10만 달러 장학금 달성

애틀랜타 지회에서는 2018년 12월 9일(월) St. Marlo Golf Club에서 연말 파티를 열었다. 60여 명의 동창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창들 간의 친교를 다지고 토론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가한

팀의 텔런트 쇼 앵콜 공연도 가지며 뜻깊은 친목을 다졌다.

2019년 1월에는 총회를 열고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한 회계, 서기,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이사회 회의 보고도 있었다. 2018년도에는 애틀랜타 이화 장학금 목표액인 1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다시 2,000달러를 국제재단을 통하여 장학금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국제재단 100만불 모금 운동에도 애틀랜타 동창들이 참여하여 3,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또한 한인 2세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인 미주 한미장학회(Korean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에 1,000달러의 기금을 전달하고 조지아 대학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2월 모임에서는 2019년도 활동계획을 나누고 3월에 미술 박물관 관람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애틀랜타 지회는 장학금 지원 및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연말 파티를 열고 친교를 다진 애틀랜타 지회

오타와 지회

회장__박은경(장미 85)

송년회와 집들이

2018년 12월 16일(일) 박은경 회장 집에서 가족



가족동반 송년 모임을 개최한 오타와 지회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동반 송년회를 가졌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주제로 어린 아기로 강림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찬양 드림으로 시작해 식사와 게임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한 사람씩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 오는 날에 대한 기대를 말한 1분 스피치 시간엔 여러 동창이 나이 들어감을 체감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런 중에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 오는 날들에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1월 12일(토)엔 새 집으로 이사한 신호민(물리 97) 동창의 집들이로 모였다. 이날은 다른 도시로 가게 된 안현옥(독문 86) 동창의 송별회이자 3개월 전 오타와에 새로 온 이연희(컴공 04) 동창의 환영식도 겸했다.

은 새로운 동창들이 참석해 연말 파티는 더 신선하고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갖가지 게임들과 상품들로 인해 큰 학번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으며, 더 많은 동창들이 동창회 모임과 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

신년을 여는 첫 행사로 워싱턴DC 지회는 2019년 1월 19일(토) 이사회 총회를 가졌다. 34명의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지난 한 해 이사 활동과 회계보고를 듣고 2019년 새 이사장 선출과 동창회 임원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이사장으로 김정자(가정 62) 동창이 선출되었는데, 김 동창은 1975년 제1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워싱턴 DC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만큼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워싱턴DC 지회 이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 것이라 기대된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조은희(경제 91)

이사회 총회에서 새 이사장 선출

한 해를 뜻깊게 마감하는 의미로 해마다 가졌던 크리스마스 파티를 2018년 12월 8일(토) Westwood Country Club에서 진행하였다. 110명이 넘는 선후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고 많

일본 지회

회장__고정희(장미 74)

모교 총장의 특강으로 신년회 개최

2019년 1월 11일(금)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김



특강으로 신년회 모임을 가진 일본 지회

혜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신년회를 가졌다. 김혜숙 총장은 일본 오차노미즈대학과 동경여자의대 투원즈생명공학 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일본 지회를 위해 ‘읽는 그림–구사, 논어계씨 10’의 특강을 해주어서 뜻깊고도 내실 있는 신년회를 치를 수 있었다.

자카르타 지회

회장__이은수(동양 78)

지역민을 위한 성금 모금

2018년 12월 7일(금), 연말 송년회를 맞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정리하며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하고자 각자 소정 금액의 선물을 준비해서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자카르타 지회 동창들

라 럭키 드로우 행사를 통해 재미와 풍성함을 맛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최근 인도네시아 지역의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성금을 모금하여, 모금액 총 310 만 루피를 땅그랑반튼한인회에 전달하였다. 성 원해 준 모든 동창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 한다.

2019년 2월 12일(화), 13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신년 동창회를 가졌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고 2019년에도 지속적인 문화강좌를 통해 풍성하고 알찬 시간을 기약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새해를 맞아 ‘Color of Ewha’라는 주제로 계절에 따른 이화여대 캠퍼스의 아름답고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탁상 달력도 동창들에게 증정했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_문성애(생미 81)

윷놀이를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2018년 12월 19일(수) 일식당 Shuhei에서 13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지연(법대 65) 동창이 1년 만에 참석해 주어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다. 이 동창은 건강한 모습으로 동창들 한 명 한 명을 안아 주었다.

새해에는 일을 하는 동창들을 위해 토요일 모임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가능하면 식당보다 동창 집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다. 한국 총동창회에



웃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나눈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서 온 수첩과 달력을 전달하였다.

2019년 1월 26일(토)에 2019년 첫 번째 이화 만남이 노희용(약학 82) 동창 집에서 열렸다. 그동안 내린 눈으로 이미 흰색으로 뒤덮인 정원 위로 은가루가 날리듯 눈발이 희끗희끗 춤추며 내려앉고 있었다. 노희용 동창 부군의 식사 전 기도 후에 축복 속에서 동창들은 함께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동창들은 웃놀이를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모두 열띤 응원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웃놀이 상품으로 준비한 김을 자랑스럽게 받아 들고 동창들은 아이들처럼 기뻐했다. 특히 여든이 넘은 노희용 동창의 어머니께서 해맑은 얼굴의 아름답고 단아한 모습으로 웃놀이에 참가해 동창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온 이야기며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분야의 체험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꽂을 피우던 동창들은 오후 4시경 아쉬운 작별을 했다.

2월 23일(토) Cooper's Hawk Winery and Restaurant에서 아홉 명의 동창이 모여 와인 한잔 없이 지난 한 달 간의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시간과 나이를 초월한 이화 만남은 정말 자유롭고 끈끈한 만남이다. 4월 모임엔 겨울 동안

읽은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다음달엔 클리블랜드 뮤지엄 한국관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며 헤어졌다.

토론토 지회

회장__김혜연(법학 85)

선후배가 화합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첫 모임

2019년 2월 23일(토), 이화 동창회 기도 모임인 횃불회가 김미나(행정 86) 동창 집에서 열렸다. 29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으며 각자 정성스레 준비해 온 온갖 나물로 일품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한명실(사회과교육 71) 목사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다시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예배 후에는 다 같이 손잡고 울동하며 축복송을 부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을 건네었다. 선후배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기도 모임으로 신년 모임을 치른 토론토 지회 동창들

파리 지회

회장__ 함미연(불문 81)

송년회와 설 떡국 모임

2018년 12월 1일(토) 파리 14구에 위치한 권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총 34명의 동창 및 동창회 임원이 참석하였는데, 노란 조끼 시위에도 불구하고 총 참석자 수가 작년과 비슷하여 동창회를 향한 이화인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임원들은 이화 수첩, 달력 및 『이화동창』 회보를 배포하였으며, 식사 후에는 동창들끼리 간단한 오락 시간을 통하여 함께 친목을 쌓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더욱 활발한 교류 및 동창회 홍보를 위해 개설된 동창회 인스타그램(@ewhainfrance)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ewhainfrance) 계정을 소개하고, 동창회 향후 일정을 안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송년회는 마무리되었다.

파리지회는 설을 맞이하여 2019년 2월 16일(토) 파리에 계신 대선배들을 모시고 함께 떡국 및 명절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창들은 연말 송년회 이후 모처럼 모여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담소를 나누며 회포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한국만큼의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먼 타지이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맛있는 명

절 음식을 나누며 이화 가족들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__ 김미진(도예 79)

이사 온 동창의 집에서 환영 모임

2019년이 밝아오면서 지회 동창들이 모였다. LA에서 이사 온 한나리(체육 92) 동창이 설이 지난 며칠 후에 예쁜 새 집에서 떡국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마침 그날이 학교가 쉬는 날이었는데 한 동창의 아들과 딸이 엄마를 도와서 서빙하는 모습이 행복한 한 가정의 본보기처럼 아름다웠다.

모임 장소가 시내에서 먼 곳이라서 모여서 한 차로 가는데, 그날은 너무도 날씨도 쾌청하고 컬럼비아 강을 따라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배들은 마치 소녀같이 좋아하였다. 참석자들은 한나리 동창을 위해 각자 살아온 얘기를 포함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오랜만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지금 투병 중인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하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꽃이 만발하는 봄날, 모교의 동창의 날에 맞추어 만나기로 하였다.



송년회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한나리 동창의 집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진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

총동창회 홈페이지 이용해 보셨나요?

<http://www.ewhaalum.or.kr>

23만 이화동창의 소통과 나눔을 위해 개설된 총동창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총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과 동창들의 근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동창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난호 《이화동창》도 언제든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ewhaalum.or.kr>

The screenshots illustrate the website's layout and features:

- TITLE BAR:** Includes links for HOME, SITE MAP, and EWHA.
- NAVIGATION:** Features tabs for 총동창회소개 (About the Association), 동창행사 (Alumni Events), 동창서비스 (Alumni Services), 동창 게시판 (Alumni Bulletin Board), 동창동록 (Alumni Record), and 동창회보 (Alumni Newsletter).
- Content Area:**
 - 총동창회소개:** Shows a banner for "With Ewhain, 함께하는 이화인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and a sidebar with links to EWHA history,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and news.
 - 찾아오시는 길(정문 도보):** Displays a map and walking route information.
 - 동창 게시판:** Shows a list of posts categorized by category (e.g., 2010년 갑기축복 및 신입생 등록, 2010년 졸업생 120주년 기념 등록) and date (e.g., 2010-01-01).
 - 동창회 소식:**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and text about the association's new venture, followed by a list of news items.
- FOOTER:** Includes links for 모교후원 (Alumni Support), 각과·지회 명단 (List of departments and clubs), 연동행사 (Joint events), 21만 동창 등록 (210,000 registered alumni), and various news and service sections.

박인경(미술 49) 동창

고암 이응노 화백의 도불 60주년을 기념하는 이응노-박인경 전 ‘사람·길’을 흥성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서 2019년 5월 26일(일)까지 개최한다. 박인경 동창은 우리나라 최초 미대인 모교 미술과 제1회 졸업생으로 구순을 넘긴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경 동창

김매자(체육 66) 동창

2019년 2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김매자의 춤-샤이닝 라이트>를 공연했다. 한국 창작 춤의 대모로 불리는 김매자 동창은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무용계에 한국 창작 춤을 알린 무용가다.



김매자 동창

김영숙(약학 67) 동창

가정문화원 원장 김영숙 동창이 2019년 2월 26일(화)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재소자들에게 34년간 한글, 영어를 교육하고 사회 정착을 지원한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영숙 동창

이신호(동양 72) 동창

2019년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층 한 경갤러리에서 개인전 ‘바람의 꽃’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는 작고한 지 20주기가 된 남편의 빈 자리와 그에 대한 미안함을 아름다운 꽃의 색감과 생명력으로 표현한 근작 30여 점을 선보였다.



이신호 동창

양승희(사학 73) 동창

2018년 12월 7일(목)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양승희 동창은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에서 17기와 18기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주 동포들의 통일 의지와 통일 공감대 형성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양승희 동창

이광희(국제사무 74) 동창

‘이광희 부티끄’ 대표인 이광희 동창이 2019년 1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남수단 톤즈 희망고 빌리지에 학교를 건립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09년 나무 심기로 시작한 이 동창의 아프리카 구호 활동은 주민들의 자립을 위한 복합교육기관 건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광희 동창

이사라(국문 75) 동창

시인 이사라 동창이 제51회 시인협회상을 수상하

였다. 수상 시집은 『저녁이 쉽게 오는 사람에게』이다. 이 동창은 대한민국문학상을 받았고, 한국 문예창작학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이다. 시상식은 2019년 3월 30일 (토) 서울 중구 퇴계로의 ‘문학의집 서울’에서 있었다.



이사라 동창



조각그룹 너와

윤덕경(무용 76) 동창

무용과 동창회장이자 전 서원대학 교수 윤덕경 동창이 2019년 3월 2일(토) 미국 글로벌한미교류연합회 주최 ‘삼일절 기념 미국 초청공연’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윤덕경 동창의 〈태평무〉, 〈해를 마시다〉와 윤덕경무용단의 〈아리랑〉과 〈베사매무초〉가 공연됐다.



윤덕경 동창

이미연(동양 76) 동창

이미연 동창의 개인전이 ‘The Spiritual Journey—영적 여정’이라는 주제로 2019년 2월 28일(목)부터 3월 10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재료뿐 아니라 아크릴, 연필 등을 이용한 드로잉이 덧붙여짐으로써 현대 회화의 표현 영역을 총망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연 동창

고혜숙(조소 77)·나진숙(조소 84)·조미연(조소 84)·지명순(조소 87)·호해란(조소 88)·김선영(조소 89)·김정연(조소 89)·차종례(조소 92)·김양선(조소 94)·조은희(조소 94)·강선구(조소 99) 동창

조소과 동창들로 이루어진 조각그룹 너와가 2019

양해경(사회 77) 동창

사람과 평화 대표 양해경 동창이 2018년 11월 30일(금)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진행된 ‘2019 아시아스 타마케팅컨벤션’에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양 동창은 한국



양해경 동창

여성민우회를 창립하였으며, 현재 사람과 평화 대표와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서 20년 가까이 여성인권활동가로 활동 중이다.

이나경(서양 77) 동창

2019년 3월 9일(토)부터 4월 10일(수)까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기획한 ‘예술편력’ 시리즈의 2019년 첫 기획 전시이다.



이나경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수원대학교 공예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영란 동창이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2018년 올해의 협회상’에 선정되어 2018년 12월 8일(토)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받았다. 또한 중국 차오주에서 개최된 2018 CHAOZEHOU INTERNATIONAL EMBROIDERY ART BIENNALE에 초대되어 12월 20일(목) 본인의 현대 자수 및 한국 전통자수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현대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2019년 1월 5일(토)까지 초대 기획전시를 하였다.



장영란 동창

박선영(법학 78) 동창

2018년 12월 12일(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에서 ‘2018년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박선영 동창은 사단법인 물망초를 설립,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탈북자 정착지원 활동,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참상을 알리기 등 다양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 ‘올해의 인권상’은 2005년부터 시작해 13회째를 맞았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박선영 동창

이은수(동양 78) 동창

2019년 1월 12일(토)부터 20일(일)까지 Lotte Shopping Avenue Main Atrium에서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은수 동창

홍은주(장미 78) 동창

2019년 1월 24일(목) 성수연방에서 열린 ‘(사)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 2019 정기총회 및 제4대 임원진 보궐선거’에서 홍은주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20년 6월 28일(일)까지이다.



홍은주 동창

김희경(조소 79) 동창

2018년 12월 4일(화)부터 9일(일) 까지 미국 CONTEXT ART Miami 전시에 초대되었다



김희경 동창

정성숙(무용 80) 동창

2018년 12월 29일(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정성숙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 춤, 안성향당무 이수자로 강남문화재단 강남전통예술단 예술감독과 이화예술단 대표로 활동한 전통예술 분야 전문가다.



정성숙 동창

김홍식(서양 85) 동창

2019년 2월 20일(수)부터 5월 20일(월)까지 서울시 중구 ‘파라다이스 집’에서 개인전 ‘B Theory’를 개최한다. 전시 제목인 ‘B Theory’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며 과거·현재·미래 모두 동일하게 실재한다는 시간 철학 개념에서 차용했다. 파라다이스 집은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모든 전시·공연은 무료로 제공된다.



김홍식 동창

박종순(한음 85) 동창

정가를 전문으로 공부한 1세대 국악 정가 전공자 박종순 동창이 소리와 염색을 접목시킨 ‘소리명상 염색전’을 2019년 1월 24일(목)부터 31일(목)까지 인사동 신상갤러리에서 열었다.

노승희(기독 86) 동창

2018년 12월 12일(수)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제11회 올해의 올빛상을 수상하였다. 올빛

상은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여성 예술가들에게 시상한다. 노승희 동창은 1992년 극단 ‘표현과 상상’을 창단해 현재 대표와 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노승희 동창

손승희(과교 86) 동창

손승희 동창이 대전지방기상청 제21대 청장으로 취임했다. 손 동창은 모교를 졸업하고, 동대학 물리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기과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손승희 동창

이경희(조소 86) 동창

2018년 12월 12(수)일부터 21일(금)까지 모인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경희 동창

이미영(무용 86) 동창

국민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미영 동창이 2019년 1월 11일(금) 한국춤협회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춤협회는 1981년 한국무용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학술, 교육, 공연사업을 수행하여 한국 무용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서 깊은 조직이다.



이미영 동창

김운경(섬예 87) 동창

2019년 3월 6일(수)부터 12(화)까지 인사동 갤러리 신상에서 ‘운경-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자수’ 개인전을 열었다. 김운경 동창은 캐나다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섬유예술 작가이다.



김운경 동창

석재민(식영 87) 동창

인터컴 부사장인 석재민 동창이 한국PCO협회 신임 회장에 선임되었다. 한국PCO협회는 국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대표 단체로 2007년 출범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로 지정됐다.



석재민 동창

박선희(장미 88) 동창

모교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동창이 2019년 2월 (사)한국패션문화협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사)한국패션문화협회는 국내 패션아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1995년에 창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단법인 단체이다.



박선희 동창

임순영(사회 88) 동창

2019년 1월 15일(화) 성평등 문제 등에 관한 젠더정책 특별보좌관인 ‘젠더특보’에 전 국회사무처 보좌관 임순영 동창이 임명되었다. 직위는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에 해당하며, 임기는 1년이다.



임순영 동창

권혜진(문정 89) 동창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이자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대표 운영자인 권혜진 동창은 ‘2018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 컨퍼런스’와 ‘제1회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 조직위원장을 맡아, 2018년 12월 20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혜진 동창

열린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데이터 저널리즘 코리아와 건국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였고 구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하였다.

김수지(동양 89)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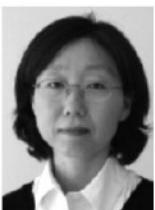
김수지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웜 갤러리에서 2018년 12월 22일(토)부터 2019년 1월 11일(금)까지 ‘찰나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김수지 동창

이경희(생명 89) 동창

이경희 동창이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장에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K-Water 연구원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충청관리처 수질관리팀장, 한강보관리단 운영부장 등을 거쳤다



이경희 동창

이보경(동양 89) 동창

이보경 동창의 초대 개인전이 2019년 2월 28일(목)부터 3월 6일(수)까지 ‘Freezing a Moment-Nature’라는 주제로 대전에 위치한 이공갤러리에서 열렸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현실의 순간을 강렬하고 화려한 색으로 표현해 온 이 동창은 찰나에서 느끼고 해석하고 재탄생시키는 행위를 통해 자연을 표현했다.



이보경 동창

이인경(동양 89) 동창

이인경 동창의 개인전이 ‘KAIROS’라는 제목으로 구하갤러리에서 2019년 2월 15일(금)부



이인경 동창

터 3월 9일(토)까지 개최되었다.

이지수(동양 89) 동창

이지수 동창의 개인전이 2018년 12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As You Can See’라는 제목으로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수천 번이고 덧칠하면서 빛으로 생기는 사물의 왜곡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지수 동창

정선애(정외 89) 동창

전 서울시 비영리단체(NPO) 지원센터장 정선애 동창이 서울혁신기획관에 2019년 1월 30일(수) 임명되었다. 정 동창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경험에 풍부하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재임을 통해 시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등 소관 현안사업에 전문성을 갖춰, 서울혁신기획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임기는 2년이다.



정선애 동창

안순태(법학 90) 동창

모교 커미부 교수로 재직 중인 안순태 동창이 한국헬스케뮤니케이션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년이다. 헬스케뮤니케이션학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정책,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는 학술단체다.



안순태 동창

이주연(동양 90) 동창

이주연 동창은 ‘Echo Beyond Time 2018’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12월 12일(수)부터 19일(수)까지 유

나이티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한 20여 점의 작품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이주연 동창

김주이(경영 92) 동창

2019년 1월 1일(화) 대전시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다. 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주이 동창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을 역임하였다.



김주이 동창

차종례(조소 92) 동창

2018년 12월 18일(화)부터 30일(일)까지 세종호텔 세종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차종례 동창

노지희(한음 93) 동창

호주 멜버른에서 거문고 연주가로 활동 중인 노지희 동창은 '한국 문화패 소리' 모임을 꾸준히 리딩 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UN World Refugee Day와 Boxhill TAPE Diverse Day, Maanningham City Council 주관 하의 독주회에서 연주를 함으로써 한국의 전통과 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호주 멜버른에서는 한국인 최초로는 스즈키 티처 자격증을 획득하여 피아노 교육 분야에서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노지희 동창

박영희(동양 93) 동창

박영희 동창은 '물빛 이야기'로 2019년 1월 11일(금)부터 3월 16일(토)까지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

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수영장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동양화 채색 기법으로 밝고 화사한 작품을 제작해왔던 박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도슨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관객들과 소통하였다.



박영희 동창

양소영(법학 93) 동창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팀 공보이사에 변호사 양소영 동창이 임명됐다. 양 동창은 현재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 언론 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맡고 있다.



양소영 동창

김서경(조소 94) 동창

2018년 12월 26일(수)부터 2019년 1월 1일(화)까지 갤러리 토포하우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양선(조소 94)·이지은(조소 97) 동창

2018년 12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KOSA ART SPACE에서 2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양선·이지은 동창

박지영(성악 94) 동창

소프라노 박지영 동창이 2019년 3월 3일(일)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박지영 동창은 성악음학학술연구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성악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박지영 동창

하승연(장미 94) 동창

2019년 2월 18일(월)부터 24일(일)까지 갤러리 일상에서 'Heritage Cinvergence'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금관장식, 귀걸이 장식, 연꽃무늬 벽돌 등 무령왕릉 유물들을 가방으로 재해석하였다.

하승연 동창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의류상품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승연 동창

송혜영(피아노 96) 동창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송혜영 동창이 포트워스 심포니 부악장 슈왕린과 함께한 바이올린 피아노 듀오 연주회 시리즈로 호평과 갈채를 받았다. 댸러스 부커티 워싱턴 예술고등학교에 초청되어 매스터 클래스를 열었고, 재즈 작곡가 칼루이스턴의 피아노 작품을 현정받아 초연했다.



송혜영 동창

조양희(무용 96) 동창

조양희 동창이 대표이자 무용수,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무용단-탐'이 2019년 3월 26일(화) 모교 삼성홀에서 제39회 정기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조 동창의 작품 <공터>가 공연되었다.



조양희 동창

오수연(조소 98) 동창

2018년 12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KOSA ART SPACE에서



오수연 동창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박지현(융합보건 99) 동창

박지현 동창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내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솔루션 기업 아틀라슨을 창업했다. 박 동창은 국내 건축사무소 여성 설계본부 팀장,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건축학과 연구교수 등 18년간 실내환경 및 건물 성능평가 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차경화 동창

차경화(조소 00) 동창

2018년 12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서초문화예술회관 나비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현정 동창

김현정(행정 01) 동창

김현정 동창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김 동창은 대전세관장, 본청 기획심사팀장을 역임하였다.

금혜원(동양 03) 동창

2018년 12월 27일(목)부터 2019년 2월 16일(토)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우민아트센터에서 'Concretopia, 가상의 유토피아' 전시를 가졌다. 이번 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 콘텐츠가 지역 유휴 공간에 순회 전시되도록 지원하는 '미술창작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주희 동창

김주희(동양 03) 동창

김주희 동창의 개인전이 '선물'이란 제목으로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2019년 2월 20일(수)부터 3월 2일(토)까지 개최되었다.

박지현(관현 03) 동창

오보이스트 박지현 동창이 2019년 3월 9일(토) 예술의전당 리사 이틀홀에서 오보에 독주회를 가졌다. 박 동창은 현재 대전시립 교향악단 부수석, 체임버앙상블 하느바람 멤버로 활동 중이며 덕 원예고와 모교에 출강, 영남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지현 동창

진민욱(동양 03)·진희란(동양 13) 동창

외교부가 주최한 2018 청년작가 한국화 공모전에서 국가 이미지 제고 전시부문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선정 된 작품은 대여 형태로 외교부 공간에 1년 동안 전시된다.



진민욱 · 진희란 동창

홍은아(체육 03) 동창

홍은아 동창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신임 상벌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9년 2월 27일(수)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홍 동창은 2003년 한국 심판 중 최연소로 국제축구연맹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활약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이사, AFC 심판강사와 평가관을 맡고 있으며,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은아 동창

김지원(심리 05) 동창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 상무 김지원 동창이 전무로 승진 했다. 김 동창은 꾸준한 매출 신장세 및 브랜드 확장 등에 힘을



김지원 동창

쏟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웠으며, 이번 승진을 기점으로 제품 생산 공정까지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정시은(류시은·국문 08) 동창

정시은 동창이 ‘2019 경향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다. 당선작 「나나」는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백지은(동양 10) 동창

백지은 동창이 갤러리 이즈 신진 작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 선정 작가로 2019년 1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Melting Point’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관계에 대한 심상을 ‘녹은 캔디’로 표현함으로써 작가의 주관적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백지은 동창

홍재경(법학 12) 동창

아나운서 홍재경 동창이 봉황유소년야구연맹(회장 조상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홍 동창은 2014년 SBS스포츠에 입사한 6년차 스포츠아나운서이다.

백혜림(대학원 18) 동창

백혜림 동창의 개인전이 ‘아름다움 속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2019년 2월 27일(수)부터 3월 5일(화)까지 갤러리 이즈에서 개최되었다. 레이스로 이루어진 커튼이나 일련의 천을 소재로 작업을 해 온 백 동창은 실제로 레이스를 짜나가듯 세필을 반복해 터치를 쌓아가며 자신의 내밀한 기억을 형상화하였다.



백혜림 동창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오늘을 잡아라·점원 서숙(영문 68)

서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시리즈의 아홉 번째 책으로, 미국 유대계 작가 솔 벨로와 버나드 말라머드의 소설을 담았다. 195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가 초래한 번영 이면의 인간적 소외와 사회적 그늘을 꼼꼼히 분석했다.



아시아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폭력

김은실(영문 80)·이명선(대학원 89)·노지은(경영 92)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기획,

김은실·이명선·노지은 역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여성 혐오와 폭력, 조荤, 월경 금기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관습과 문화를 드러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의 활동상을 보여준다.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여성 활동가들이 쓴 15편의 글을 담았다.



조선 왕릉에서 읽는 역사 이야기 김정옥(사학 80)

김정옥 지음 / 여백미디어

- 40기의 왕릉과 폐위된 두 임금의 묘를 실제 답사하며 관찰, 비교한 역사 기행서다. 왕과 왕비의 삶과 죽음, 역사의 흐름을 뒤바꾼 사건들을 조망하면서, 능제 변화와 석물 등 문화유산의 미학적 의미까지 이야기한 책이다.



실체의 연구: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한자경(철학 81)

한자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 책은 플라톤에서 데리다까지 총 14명의 철학자들

을 다루고 있는데, 각 철학자들의 전반적인 철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체론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서양 형이상학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자경 동창은 모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방송학 원론 유세경(커미부 82)

유세경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방송 관련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방송학 입문서로, 제4 개정판이다. 유세경 동창은 현재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문화 사회의 다종성 원숙연(행정 86) 동창

원숙연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아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문화적 도전'의 정치성을 심층 분석한 책이다. 원숙연 동창은 현재 모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에스더: 한국 의학의 빛이 된 최초의 여의사

이방원(사회과교육 88)

이방원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 역사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에스더는 '보구여관'과 평양 '광혜여원'을 통해 의료 선교에 힘썼으며 여성 의료 교육에도 기여를 하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사와 여성사, 기독교사에 이름을 남겼다.



UPGRADE
2세대 탄생

액체 다이아몬드로 잡티를 잡다!

액체 다이아몬드 불가리안 로즈 오일에 *특허성분을 더해 더 강력하게!
단 2주만에 **잡티개선 만족도 100%! UPGRADE 잡티세럼Ⅱ를 지금 만나보세요.

www.isoi.co.kr 아이소이 고객센터 1800-9100



*특허출원 10-2019-0027698 불가리안 로즈 오일 및 바위돌꽃뿌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조성을
**(주)대한피부과학연구소 / 2019.1.17~2.14 / 20명 / 제품 사용 후 2주차 설문 긍정답변율(%)

아이소이는
효과다

iSOI



연두의 계절 봄이 왔어요!



냉이나물, 달래된장찌개, 도다리쑥국, 봄동무침…

연두 하나로 이렇게 쉬운 봄나물 요리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